

통신업체 이어 롯데카드까지… 대기업 해킹 ‘비상’

KT·LGU+, 정보유출 의혹
과기부 정밀 포렌식 진행 중
롯데카드 17일 지나 해킹인지
예산 축소 속 보안투자 한계

SK텔레콤이 지난 4월 해킹 피해로 사상 초유의 과징금 부과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도 해킹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 날 롯데카드에서도 해킹 사고가 확인돼 국내 기업·기관들의 사이버 침해에 대한 대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LG유플러스의 (해킹)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자료 제출을 통해 정밀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실제 사고가 확인될 경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글로벌 해킹 전문지 프랙 매거진(Phrack Magazine) 창간 40주년 기념호에 실린 보고서에서 비롯됐다. 지난달 8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해커 조지 김수키(Kimsuky) 서버에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기관으로부터 유출이 의심되는 정보가 발견됐다. 보고서에는 KT, LG유플러스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 외교부의 내부 메일 서버 소스코드 등이 포함된



물가상승률 9개월 만에 최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로 지난해 동월 대비 1.7% 상승해 작년 11월(1.5%)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2일 서울 소재 유통매장에서 소비자들 쇼핑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뉴시스

데이터 8GB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T는 “침해 사실이 확인된 바 없으며 정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LG유플러스도 “현재까지 특이 사항은 없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롯데카드에서도 해킹 침해가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2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에 최초 해킹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달 14일 오후 7시 21분 경이다. 이날과 15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이 이뤄졌다. 그러나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를 인

지한 시점은 지난달 31일 정오로, 사고 발생 후 17일이 지나서야 사태를 파악했다. 금융당국 신고는 이날 1일 이뤄졌다. 유출된 데이터 규모는 약 1.7기가바이트(GB)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버 침해사고는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고 건수는 2.2배 증가해 올 상반기만 1034건에 달한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에 노린 해킹·협박이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까지 공격이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안투자와 인식 부족을 문제로 지적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의 ‘2024년 정보

보호 공시현황’에 따르면 정보 보호 공시를 진행한 746개 기업의 평균 투자액은 29억원, 전담 인력은 10.5명으로 전년 대비 늘었지만, 28%의 기업들은 오히려 예산을 줄였다고 답해 여전히 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규 KISA 위협분석단장은 “사이버 침해 사고는 해당 기업들의 서비스 마비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들도 애꿎은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사이버 침해에 대비하기 위한 사후 조치뿐 아니라 사전 예방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5 물류&모빌리티포럼’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물류&모빌리티 포럼’이 올해로 어느덧 10년을 맞이합니다. 그 사이 물류·모빌리티 산업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동’이 공통분모인 이들 산업의 앞으로 10년은 더욱 빠르게 진화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더욱 스마트해지는 기술은 사람과 물건을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간과 공간 사이를 오고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연결’, ‘친환경’, ‘공존’, ‘안전’은 핵심이 될 것입니다.

10회를 맞는 올해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선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이라는 의미로 세상에 선보인 기아자동차의 PBV(Platform Beyond Vehicle)의 탄생 배경과 혁신적인 제품이 그리는 현재와 미래를 제시하려 합니다. 사람의 라이프스타일과 기업의 비즈니스 그 중간을 공략하는 기아 PBV는 바로 물류와 모빌리티의 대표적인 융합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선 미래의 운송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 ‘뜨거운 감자’인 로보택시 등에 관한 인사이트도 함께 전달합니다..

- 주 제 : 모빌리티가 바꾸는 물류의 미래
- 일 시 : 2025년 9월24일(수) 14:00~17:00(내빈 티타임 13:4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문의·참가신청 : 2025 물류&모빌리티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metro®

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가결 46년만에 49층 대단지로 탈바꿈

서울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은지 46년 만에 최고 49층, 5893
세대의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1979년 준공 이후 46년이 지난 은마아파트는 현행 14층 442세대에서 49층 5893세대(공공주택 1090세대 포함) 규모로 탈바꿈한다.

은마아파트는 2015년 주민제안 당시 최고 50층 계획이 35층 높이 제한에 막혀 좌절된 바 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방식에

따라 올해 1월 자문 신청 이후 8개월 만에 결정됐다. 이 방식은 별도 기획 설계 없이 전문가 집단 자문(3회 내외)을 거쳐 주민이 제안한 계획(안)을 다듬은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해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이번 재건축 계획에는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 공원과 400대 규모 공영주차장, 개방형 도서관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치역 일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4만㎡ 규모 저류조도 설치된다. 단지 중앙에는 폭 20m 공보행통로를 신설해 은마~미도~양재천~개포동을 잇는 생활권 보행축을 확보한다.

/전지원 기자 jiw13@

“임금체불은 임금절도”… 상습 사업주 강력 제재

법정부 강력 근절대책 마련
감독대상 사업장 2배로 확대
악의적 체불면 공공지원 차단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임금체불을 ‘임금절도’이자 ‘중범죄’로 규정하며 법정부차원의 강력한 근절 대책을 내놔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법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열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때 보상받는 것은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체불 예방 △상습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구조적 취약점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1만5000곳에서 2만7000곳으로 2배 수준 확대하고, 재직자 익명 제보와 지자체·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도입한다. 추석 전에는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도산 기

업의 피해 노동자를 위해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현행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넓힌다.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10월 23일 시행)에 맞춰 신용제재·공공재정 지원 제한·명단 공개·출국 금지·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 방안도 추진된다. 김 장관은 “한 번이라도 악의적 체불이 발생하면 정책자금 융자 등 공공 지원을 차단하겠다”고 못 박았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구조적 체불’을 정조준했다. 건설·조선 업종에는 임금 구분

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해 하도급 노동자의 임금 누수를 막고, 퇴직금 체불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법정형도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해 체불이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 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추석을 앞둔 6주간 ‘체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체불 SWAT’으로 불리는 전담 대응팀을 투입하고, 체불 변제 추적 전담센터도 가동한다.

/세종=한용수, 안승진 기자 hys@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로 여야 충돌…국힘 단체 퇴장 /사진 뉴시스
▲여야 ‘금융위 해체안’ 공방…이덕원 후보자 “언급 적절치 않아”

▲김정은, 방종 전 미사일연구소 방문…핵보유국 과시·신형 ICBM 개발 시사
▲김병기 “내란특별재판부 필요…더 강력한 3대 특검법 처리할 것”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2030남성 극우화’ 주장, 철회할 생각 없어”
▲송 총리 “스드메 감감이 불공정 여전…소비자 보호제도 보완해야”

KAI·한화 vs 대한항공·LIG

1.8조 전자전 항공기 개발 격돌

방사청, 연구개발 입찰 절차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시스템, 대한항공과 LIG넥스원이 각각 '원팀'을 이뤄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전자전 항공기 개발 사업을 놓고 격돌한다. 설계부터 체계통합, 감항인증, 안보리스크 까지 고난도 역량이 중요한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날까지 한국형 전자전기 연구개발 사업 입찰 절차를 진행한다. 캐나다 봄바르디어사의 중형 민항기 G6500을 개조해 전자전기 임무 장비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1조7775억원을 투자하고 국내 업체가 연구·개발을 맡는다. 사업자 최종선정은 다음 달 진행 될 예정이다.

현재 KAI와 한화시스템, LIG넥스원과 대한항공이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공군의 전자기 스펙트럼(EMS) 전력 확보와 방산 수출을 동시에 겨냥한 초대형 프로젝트다. 신규 전투기 제작보다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장시간 작전 지속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군 전력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먼저 KAI-한화시스템 컨소시엄은 국산 항공기 개발과 감항인증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KAI는 지난 30년간 KT-1, T-50, 수리온, LAH, KF-21 등 국산항공기 5개 기종 20여 종의 파생형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P-3C, E-737, 백두체계 2차 등 항공기 개조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국



대한항공과 LIG넥스원의 전자전기 예상도. /대한항공

KAI-한화시스템 컨소시엄

항공기 개발·감항인증 경험 강점
항전장비 체계 중대형 기종 확대

LIG넥스원-대한항공 컨소시엄

전자전 장비·민항기개조 역량 갖춰
정부인증 격납고 등 기반시설 보유

산기 개발로 확보한 항전 장비 체계 통합 능력을 중대형 기종으로 확대했다.

특히 KAI는 항공기 최적화 설계부터 체계통합까지 자체 수행이 가능하고 유인기 시험 평가 및 군민 감항인증 전환 경험을 갖춘 유일한 기업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간 다양한 항공기 플랫폼 개발을 거치며 사업 관리 및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갖춘 점도 부각되고 있다.

LIG넥스원-대한항공 컨소시엄은 전자전 장비 개발과 민항기 개조 역량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한항공은 P-3C 해상초계기 성능 개량, 백두 1차 사업 등에서 민항기를 군용기로 개조해 감항인증을 확보했으며, 2020~2023년에는 B777 여객기 10대와 A330 여객기 6대를 화물기로 성

공적으로 전환했다.

또한 김해국제공항 시험비행 인프라, 71만㎡ 규모의 정부 인증 격납고, 보안·도장 설비 등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추가 정부 지원 없이 독자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내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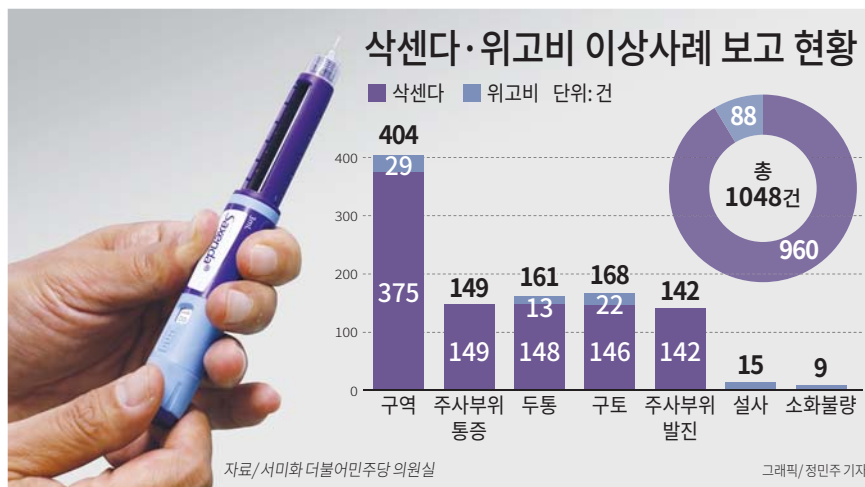
LIG넥스원은 지난 2023년 말레이시아 FA-50 RWR, 2024년 페루 해군 함정 전자전 솔루션 수출에 성공한 바 있다.

다만 시장에서의 우려도 존재한다. 대한항공은 과거 백두체계 1차 사업에서 항공기 개조를 맡았지만 독자적으로 설계·체계통합·감항 역량을 보유하지 못하면서 미국 L-3사와 협력했다. 실제 설계와 비행시험은 L-3사가 미국 내에서 수행했고 미국연방항공청(FAA) 추가형식증명(STC)을 확보했다. 해외업체 감항 지원에 다시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전자전기 감항인증은 단순히 소형 군용기 제작 경험만으로 확보되는 능력이 아니다"며 "원제작사의 민간 감항성을 유지하면서 군 감항성 입증에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에서 군·민 양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입증된 15인승 이상급의 감항획득 및 운영 경험을 가진 업체는 국내에서 대한항공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체계 설계와 시험평가를 직접 수행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감항 역량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안보리스크까지 걸려있는 만큼 감항인증·체계통합 분야가 최종선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삭센다·위고비, 구역 등 이상사례 1708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5년 처방건수 111만여건 확인
정상·저체중자 '무분별 처방' 문제

다이어트 열풍을 일으킨 비만치료제의 부작용 신고가 국내에서만 17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체중, 저체중인 사람들에 대한 무분별한 처방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비만치료제 삭센다·위고비의 처방 건수가 총 111만 6694건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DUR 시스템에서 집계된 처방 건수는 삭센다 72만 1310건, 위고비 39만 5,384건이었다.

처방 환자 특성을 보면 여성이 71.5%로 남성보다 훨씬 많았고, 30~40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40.2%)과 경기(23.5%)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삭센다는 2018년 3월, 위고비는 2024년 10월 국내 시판을 시작했으며, 유명인들의 다이어트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일반인 사이에서도 급격히 수요가 늘어났다.

의원실은 가장 큰 문제로 정상체중자나 저체중자에게도 무분별하게 처방

됐다는 점을 꼽았다.

서 의원은 "비만치료제가 원칙적으로 BMI 30 이상 비만 환자, 혹은 체질량지수(BMI) 27 이상이면서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만 처방 가능함에도, 정상체중자나 저체중자에게도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특히 BMI 검증 절차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사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의원실이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보고된 이상사례는 총 1708건(삭센다 1565건, 위고비 143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상은 ▲구역(404건), ▲구토(168건), ▲두통(161건), ▲주사부위 소양증(149건), ▲주사부위 발진(142건), ▲설사(15건), ▲소화불량(9건) 등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지만, 복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최근 SNS와 미디어를 중심으로 '위고비 다이어트'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비만환자가 아닌 사람이 미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급여 전문의약품이라 하더라도 BMI 검증을 철저히 하고, 불법·부적절한 처방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물가상승률 '둔화'... 먹거리는 '고공행진'

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 동향

통신비 인하... 1.7% 상승 그쳐

축산물 7.1%, 가공식품 4.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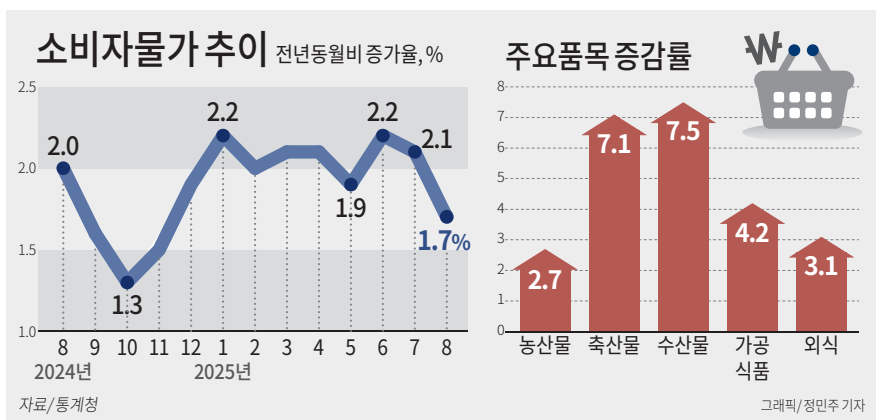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둔화했지만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의 먹거리 물가는 큰 폭의 오름세를 지속했다. 품목별로 돼지고기와 달걀, 고등어, 김치, 햄, 커피 등의 가격이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7%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2%, 2월 2.0%, 3월 2.1%, 4월 2.1%로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뒤 5월에 1.9%로 떨어졌다. 6월(2.2%)과 7월(2.1%)에 가공식품값 인상 여파로 다시 2%대로 올라섰지만 8월(1.7%)에는 올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8월 물가 둔화의 배경으로는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의 안정화, 일부 이동통신사의 휴대폰사용요금 50% 할인(1개월 한시적) 등이 꼽힌다.

이에 반해, 8월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동월 대비로 4.8% 오르며 지난해



7월(+5.5%)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특히 축산물(7월 +3.5%→8월 +7.1%)과 수산물(+7.3%→+7.5%)의 상승 폭이 전월에 비해 확대됐다. 폭염·폭우의 영향으로 농산물(-0.1%→2.7%) 가격도 증가로 돌아섰다. 가공식품(4.2%)과 외식(3.1%) 가격 역시 오름세를 이어갔다.

크게 뛴 품목은 돼지고기(9.4%)를 비롯해 국산쇠고기(6.6%), 쌀(11.0%), 김치(15.5%), 고등어(13.6%), 복숭아(28.5%), 달걀(8.0%), 참쌀(45.6%) 등이다. 또 빵(6.5%), 커피(14.6%), 햄·베이컨(11.3%) 등도 상승 폭이 컸다.

통계청은 통신요금 할인 영향을 제외하면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 수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채소가 최근 폭염 등 영향으로 출하량이 줄어서 상승 전환했다. 과실도 상승세로 전환했다"며 "수산물의 경우 명태가 하락했지만 갈치·고등어 등 가격이 올랐다"고 밝혔다. 또 "축산물은 돼지고기와 국산쇠고기의 도축마릿수 감소 등 영향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했다.

이 심의관은 "축산물의 경우, 8월 상승폭이 확대된 이유는 공급적 측면도 있고 수요적 측면도 있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숨은 금융자산 18.4조... 환급률 30% 그쳐

금감원 '숨은 금융자산 현황'

파인·어카운트인포 앱서 확인가능

숨은 금융자산이 여전히 18조원을 웃돌고 있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찾아간 비중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숨은 금융자산 현황'을 공개하며 환급률 제고 방안을 내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5조9000억원, 2022년 16조3000억원, 2023년 18조원에 이어 지난해 말과 같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장기 미거래 예적금 14조1000억원,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예금 1조4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 2조9000억원 등이다.

최근 3년간 금융권 평균 환급률은 28.9%에 머물렀다. 업권별로는 카드사(78.7%)가 가장 높았고 손해보험사(44.1%), 생명보험사(39.4%)가 뒤를 이었다. 반면 증권사(20.9%), 은행(8.1%), 저축은행(4.3%)은 낮은 수준에 그쳤다. 은행권의 경우 광주은행

(26.2%), 카카오뱅크(15.4%), 국민은행(15.1%) 등이 상대적으로 환급률이 높았지만, 한국SC은행(0.31%), 신한은행(1.77%), 경남은행(2.17%)은 저조했다. 카드사에서는 신한카드(84.4%), K B국민카드(83.9%), 우리카드(82.4%) 등이 높은 환급률을 기록했다.

금융소비자가 숨은 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 앱 등을 통해 본인 계좌와 포인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약 4조9000억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이 공동으로 캠페인을 다시 시작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급 실적을 공개해 금융회사의 참여를 독려하고, 미흡한 기관에는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숨은 금융자산이 더 많이 소비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

인도 반도체 시장 급성장… K-기업, 현지교류·거점마련 필요

인도, 연평균 투자릿수 성장세
글로벌 공급망 새로운 축 부상
“장기적 관점으로 전략 마련해야”

인도의 반도체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가 ‘차세대 생산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어 국내 기업에도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2일 투자은행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인도 반도체 수요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540억달러(한화 약 70조원)에서 연평균 13~15% 성장해 2030년에는 1080억달러(한화 약 14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은행 UBS는 인도를 ‘2030년까지 두 배 성장할 시장’으로 규정하며 정부 주도의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인도 반도체 산업은 웨이퍼 제조부터 패키징까지 전후방 생산 인프라가 동시에 확충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지난 5



2일 개막한 세미콘 인디아 2025 행사장의 모습.

/세미콘인디아 공식 트위터

월 HCL-폭스콘 합작 웨이퍼 팹을 승인했다. 월 2만 장 규모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칩 3600만 개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며 오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5만 장 규모 상업용 실리콘 팹 구축도 추진 중이다. 인도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타타일렉트로닉스 역시 아삼 주에 조립·테스트(OSAT) 공장을 연내 가동 개시를 목표로 건설 중이다.”

미-중 무역 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가

운데 인도가 가지고 있는 ‘중국 의존을 낮출 대안 생산지’라는 입지 역시 인도 반도체 성장세에 탄력을 주고 있다. 글로벌 고객사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보조금, 인센티브 등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인도의 성장세가 전략적 선택지를 넓혀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의 마이크론이 구자라트 주에 OSAT 공장을 착공하는 등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다만 인도 반도체 산업이 첨단 공정 기술 분야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메모리와 첨단 로직 반도체에서 인도와 한국·대만·미국 사이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크다. 또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의 러시아 원유 수입을 문제 삼으며 인도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국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도 잠재적 불확실성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정부 지원과 글로벌 기

업의 참여 확대가 이어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글로벌 고객사의 현지화 요구가 있을 경우 국내 기업 역시 인도 내 협력이나 거점 검토가 필요하다.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이 제재를 지렛대로 자국 내 기업 투자 확대를 압박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인도 시장으로의 단기 진출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라며 “다만 시장 잠재력은 분명한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외교·산업 기반을 다져놓는다면 추후 정부의 통상 카드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2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막한 세미콘 인디아 2025에는 33개국 350개 부스, 1만5000명 이상이 참가했다. 글로벌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최신 반도체 장비·패키징 기술을 선보였다. 인도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자국이 공급망 다변화 흐름 속에서 존재감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희준 기자 nauta@metroseoul.co.kr

삼성전자, 美 현지 투자 확대… 파운드리 사업 확장 가능성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건설 재개
40억 달러 규모 첨단장비 주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대형 고객사와의 수주를 기반으로 현지 공장 투자를 재개하면서 반등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수요 둔화로 중단했던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재개하며 현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해당 공장은 삼성의 2세대 2nm(나노미터) 공정인 ‘SF2P’를 통해 연간 1만 6000장~1만 7000장의 12인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2026년 말 또는 2027년 초부터 본격적인 양산 체제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삼성전자 美 테일러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에 사용할 약 40억달러 규모의 첨단 장비를 현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과 오는 11월 두 차례에 걸쳐 엔지니어 등 인력도 채용할 계획이다. 공장 운영의 중요성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관리할 전담

최고책임자도 배치했다.

이 같은 투자 배경에는 신규 고객사 확보 덕분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삼성전자의 지난 2분기 파운드리 점유율은 7.3%로 전분기 대비 0.4%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만 TSMC의 점유율

은 70.2%로 전분기 76.7% 대비 상승세를 보이며 양사 격차는 62.9%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부문 실적을 따로 공시하지 않지만 시장에서는 지난해 5조원대 적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5조원대 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산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시스템LSI 및 파운드리 부문의 구체적인 사업 현황 및 전망 서술 분량을 전년 대비 45% 줄이는 등 비중 축소 조짐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수주 소식에 잇따르며 미국 테일러 공장 투자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이다. 회사는 지난 7월 테슬라로부터 차량용 차세대 반도체 A16칩 계약을 따냈다. 계약금액은 22조 7648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액 300조 8709억원

대비 약 7.6%에 해당한다. A16칩은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의 2nm(나노미터) 공정을 활용해 생산될 예정이다.

지난 8월에는 애플과 차세대 아이폰 등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를 공급하기로 하며 미국 공장의 일감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품질테스트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테슬라와 애플 제품을 수주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가 따른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향후 테일러 파운드리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유치하기 위한 영업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은 테슬라와 애플 외에 월컴을 신규 고객으로 확보해 중장기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데이터센터용 패키징 수요 급증… ‘FC-BGA’ 핵심 경쟁력 부상

〈플립칩 볼그리드어레이〉

국내 반도체기업, 생산능력 확충 나서
삼성전기 국내의 생산라인 확대 방침
LG이노텍 스마트팩토리 기반 수율 개선

인공지능(AI)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고성능 로직과 고대역폭메모리(HBM)을 연결하는 플립칩 볼그리드어레이(FC-BGA) 기판이 핵심 부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규모 연산을 담당하는 GPU·AI 가속기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데이터센터용 패키징 수요가 급증한 결과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일제히 FC-BGA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베



삼성전기의 FC-BGA 반도체 기판 /뉴시스

트남과 세종 사업장을 중심으로 생산라인을 확대해 서버·AI용 고부가 제품 비중을 오는 2026년까지 절반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LG이노텍은 지난해 12월 양산에 들어간 구미 스마트팩토리를 기반으로 수율 경쟁력을

높였다. 심텍 역시 말레이시아 서스티오 공장을 증설해 해외 고객사 대응에 나서고 있다.

FC-BGA는 칩을 뒤집어 기판에 직접 접합하는 구조로, 기존 와이어본딩 방식보다 신호 경로가 짧아 전력 손실과 지연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수만 개에 이르는 입출력 단자를 처리하면서도 발열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어 고전력 고속 신호가 필수적인 AI 서버 칩에는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최근에는 한 번이 100mm에 달하고 3만 개 이상의 핀을 담아내는 대형 기판까지 요구되면서 설계·공정 난도 역시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

패키지 기술 전환도 기관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최근 엔비디아가 블랙웰 세대부터 채택하기 시작한 TSMC의 CoWoS-L 방식은 유기 라미네이트와 실리콘 브리지를 결합해 대면적 패키지를 구현하는 방식으로, 하부 유기기판의 전력·신호 분배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다. 이에 따라 유기 FC-BGA는 더 넓은 면적과 더 미세한 배선 규칙을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특히 TSMC의 경우 향후 300mm급 기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용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확장하는 패키징 산업이 직면한 과제는 신소재 발굴을 위한 R&D와 기판 대형화다. 현행 주석(Sn) 계열 솔더는 향후 구리(Cu)로의 전환 가능성이 점쳐지

나, 공정 난도가 높아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기관 대형화 역시 쉽지 않다. 향후 수십 개 칩을 동시에 탑재하기 위한 300mm급 초대형 기판 수요가 예상되지만, 주류인 300mm 원형 웨이퍼로는 기판에 필요한 300mm 정사각형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형 기판을 만들 수 있는 450mm 웨이퍼 연구개발이 이전에 진행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비주류에 속해, 양산 사례 역시 없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사라는교수는 “대형 기판 생산은 단순히 사이즈를 키우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판 특성과 사용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용화엔 부담이 있다”라고 말했다.

/정희준 기자

‘번스-톨레프슨법’ 행정명령 가능성 K-조선소, 美 군함건조 길 열리나

韓美 조선산업 규제 완화 움직임

함정건조 등 협력 논의 본격화
내달 규제완화 워킹그룹 회의
HD현대 등 국내기업 수혜 전망

미국 정부가 한미 조선 협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번스-톨레프슨법’ 규제를 행정명령을 통해 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군함의 블록 제작이나 선체 건조에 참여할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 해군부 관계자는 지난달 초 우리 정부 관계자와 만나 함정 건조와 MRO(유지·보수·정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 측은 자국의 선박 건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다음 달 중순 미국 현지에서 규제 완화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 회의를 열 계획이다.

‘번스-톨레프슨법’은 미국 군함 및 주요 구성품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에는 미국산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존스법’ 역시 양국 협력의 주요 제약으로 꼽혀왔다.

규제 완화 논의는 중국과의 해군력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미 의회가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기 통과 가능성이 낮아 이를 우회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군함을 함수·중양부·함미로 나눠 한국에서 블록 모듈 형태로 제작하거나 빈 선체를 건조한 뒤 미국에서 장비와 무장을 장착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이달 초 워싱턴DC에서 미 해군성 관계자와 만나 한국 조선사가 블록 모듈(선박의 일부)을 생산·납품하고 미국 조선소가 최종 조립을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미 국방부 시설보안등급(FCL)을 취득한 국내 기업이 없어 미국 내 전투함 건조와 MRO 사업 참여는 제한될 전망이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구난함 등 비전투함은 한국에서 제작 후 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LNG 수출 확대 전략과 맞물리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조선업계가 LNG선 역

시 국내에서 제작해 미국으로 공급할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가 대미 군함 수출로 직결되지 않더라도 ‘미국이 인정한 파트너’라는 신뢰 효과를 확보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 중 최대 수혜 업체로 HD현대가 꼽힌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합병으로 생산 능력을 확장했으며, 미포조선의 도크 두 곳을 블록 제작과 특수목적선 건조에 투입하면 연간 생산량을 현재 45척에서 70척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HD현대는 이미 106척의 함정을 인도했으며, 이 중 17%인 18척은 해외로 수출됐다. 또한 지난 4월 미국 최대 수상함 조선소 운영사인 헌팅턴 잉글스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현지조립 협력의 기반도 확보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 개정 전까지 한국에서 블록 모듈을 생산하고 미국 현지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행정안전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행안위·행정안전부 당정협의회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컷 오프 기준 마련”

소비쿠폰·지방소멸 대응기금 등 논의

당정이 오는 22일부터 지급 예정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지급 기준 자료로 가구별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윤건영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안위·행정안전부 당정 협의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기준과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간사는 “1인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특성을 고려한 보정특례 조항을 두기로 하고 소득 하위 90%를 (지급 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이라며 “협의회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소비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 그동안 사용처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많았다”며 “2차 지급 때에는 생활협동조합을 사용처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다.

군 장병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확대하는 안도 검토한다. 윤 간사는 “군장병들의 쿠폰 사용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지급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해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윤 간사는 “기금이 그동안 SOC(사회간접자본) 위주로 진행돼 왔던 것을 정부인구를 높이는 방안으로 국정 철학에 맞게끔 제도를 손질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행안부에서 장기적인 대책 마련까지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정부에 제기하고자 한다.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농가 소득보전 사업이 아니다”며 “이는 지방소멸 방지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주도적으로 추진할 방법을 찾길 바란다. 지역소멸대응기금도 실질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12일에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 예정이다. 그것과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해준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이 되기 시작해서 아마도 9월말쯤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각 지역에서 함께 발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의에선 정부조직법이나 강릉 가뭄 장기화 등의 안건은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박태홍 기자 pth7285@

K-방산기업, 무인기 등 첨단 무기개발 박차

미래 전장 주도권 경쟁

소형 드론 등 무인 무기체계 급부상
“골든타임 확보 위해 정부 지원 필요”

국내 방산 기업들이 미래 전장의 핵심으로 떠오른 무인 무기체계 시장 선점을 위해 인공지능(AI), 무인화 기술, 네트워크 중심의 첨단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장 환경에서는 저비용 소형 드론부터 첨단 고성능 무인기까지 함께 운용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에서 보듯 소형 드론은 정찰과 감시, 공격 임무까지 수행하며 전장의 필수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동시에 정밀 타격이나 장거리 작전이 가능한 첨단 무인기의 필요성도 커지면서, 무인기 시장은 단순 보조 전력을 넘어 핵심 무기체계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얼라이드마켓리서치는 세계 AI 기반 무인 무기 시장 규모가 2030년 41조3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방산기업들도 무인 무기체계 개발과 글로벌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와 손잡고 수직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한 차세대 무인기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 한화는 같은 달 열린 ‘미래 비전 설명회’에서 무인 무



LIG넥스원 ‘MPUH’

기체계·엔진 개발과 양산 시설 구축에 2년간 3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놴다.

LIG넥스원은 AI 기반 자율운항 분야에서 미국 쉴드AI(Shield AI), 안두릴(Anduril)과 협력을 이어가며 기술개발 역량을 확장하고 있다. LIG는 쉴드AI와는 유무인복합·자율작전 시스템 등 미래전장에 최적화된 핵심 솔루션을 개발 중이며, 안두릴과는 유도무기·무인잠수정과 AI 운영 시스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안두릴의 무인체계 플랫폼에 LIG넥스원의 센서와 임무 장비를 탑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기술 접목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제33회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전동화 기술이 집약된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SHERPA)’를 공개했다. 현대는 육군 신속시범획득 사업을 통해 HR-셰르파를 최초 납품한 이후, 현재 4세대까지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원격·무인 운용이 가능



현대로템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

한 HR-셰르파는 부상병·탄약 이송, 감시정찰, 화생방·지뢰 탐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화재 진압용 무인 소방로봇으로 민수 분야 확장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무인 무기체계 시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정부 차원의 확실한 실행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기업들이 해외 기술 강국과 공동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무인체계는 이제 막 성장 단계에 들어선 분야로, 드론이나 사족보행 로봇을 넘어 더 고도화된 자율 무기체계로 발전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이미 투자하며 기술 성숙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호흡을 맞추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노조, 주요 경영진에 성과급 개선 요구

성과급 제도 개정 정식 요청
삼성전자측 별도 입장 없어

노란봉투법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2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전영현 DS부문장, 노태문 DX부문장 직무대행 등 회사 경영진에게 성과급 제도 개정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초기업노조는 공문을 통해 “최근 SK하이닉스가 노사 합의를 통해 ‘영업이익의 10% 성과급 지급’을 확정하면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성과급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성과급 재원을 외부 공표 지표인 ‘영업이익’에 따라 산정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내부 활용 목적의 ‘경제적 부가가치(EVA)’에 근거해 마련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EVA 기준은 직원 누구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라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특정 목표에 도달하지 않으면 성과급은 ‘0’이 될 수 있으며, 상한선까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성과급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여러 차례 회의를 했지만 이후 발표나 성과는 전혀 없다”며 “지금 삼성전자 직원들이 느끼는 감정은 실망을 넘어, 허탈함과 냉소뿐”이라고 전했다.

또 “직원들의 사기와 회사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지 못해 이미 바닥에 와 있다”며 “회사는 늦었더라도 최소한 변하려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매달 다른 매출과 복잡한 세금,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정산부터 가게 관리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순 없을까?"

"우리 가게에 꼭 맞는 정책자금, 누가 좀 알려줬으면..."

HANA THE SOHO

하나더소호

개인사업금융의 든든한 파트너

소호 사장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하나뿐인 솔루션



맞춤 금융



경영 지원



간편 금융

| 명동 '곰국시집' 유미화 사장님 | 곰국수 하나로 한국의 맛과 전통을 지켜온 곰국시집, 20년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발족

“배임죄 개선, 민사책임제도 강화”

권칠승 의원, TF 단장 맡아
“일부 규정, 정상적 경영판단 위축
벌금형 대신 과태료 전환 등 검토
피해자 권익도 두텁게 보장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등 경제형벌 성격의 법 조항을 완화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기업의 민사책임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출범식을 열고 TF의 기본 운영 방향과 주요 의제를 발표했다. TF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맡았고 오기형·허영·김남근·김기표·최기상 의원이 소속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 진을중·함상완 변호사가 합류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경영계가 반대해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1·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기업들은 배임죄의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며 이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TF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권칠승 TF 단장은 “우리나라에 경제형벌 조항이 유달리 많다.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려했던 구시대적 유물이 아직 남아있는 결과”라며 “권위주의적 정부의 흔적은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까지 옥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젠 이런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현실에 맞는 합리적 제도로 고쳐야 할 때”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일부 형벌 규정은 정상적 경영판단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받아 왔다.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민생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지우는 형벌 규정도 정비할 것이다.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과중한 형벌이 부과되는 제도를 손보고 선의의 영업주를 보호하겠다. 벌금형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능한 분야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발표한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방안’에서 “형법상 배임죄 개념이 지나치게 넓고 모호, 명확한 정의를 통해 배임죄 범위를 축소하고,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 투자 결정이 어려워진 가운데,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으로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기업 현장의 우려가 더욱 커진 만큼, 배임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일례로 “일본은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연평균 31명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965명으로 약 31배에 달해, 인구 차이를 감안해도 우리나라에서 배임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됨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TF는 기업의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

민사책임제도도 강화해 피해자 권익도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소액주주, 소비자, 서민 등 피해를 입은 국민이 분쟁에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 도입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남근 의원은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경제적 약자들이 대기업에 증거 확보가 어려워서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재적 효과를 갖기가 어렵다”며 “고소와 고발을 통해 형사 문제로 만들고 수사결과를 갖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문화도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 수집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수사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증거를 확보해서 경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경제형벌을 정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경제형벌을 최소화하고 민사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에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관련 증거를 요구·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野, 금융위 존폐 ‘견해차’ 후보자 논란에 자질 공방도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금융위 해체 여부 이견에 정회 후 재개
후보자 고액 사외이사 겸직 등 공방
부동산 투기 의혹 대해서도 해명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갭투자’ 의혹, 고액 보수의 사외이사 경력 등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앞서 접수된 서면 질의에서는 가계 부채 관리 등 정책적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민주당이 지난 1일 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 개편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위의 존치 여부와 위원장 임명의 유효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민주당이 바로 어제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위한 당정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금융위를 해체해 기재부로 정책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알려졌다”면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논의했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상 건물을 철거하는 역할로 임명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어제 당정간담회에서 금융위 분리와 관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이 논의된 것은 맞지만, 국정기획위에서 내놓았던 정부조직개편 기획안을 갖고 논의한 것이지,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해체 여부를 두고 여·야의



견해차가 명확했던 만큼 여·야는 1시간의 정회 이후 금융위원회가 존속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다

을 잡았다.

본 청문회에서는 기재부 퇴직 후 자본시장연구원 재직 당시의 고액 사외이사 겸직 논란을 비롯해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기재부 차관 퇴임 이후에 공직기관인 자본시장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종사하는 도중 사기업의 사외이사를 여러 번 지냈다”면서 “여러 사기업에서 사외이사로 재임하면서 받아간 돈만 6억원인데, 이는 사적이해관계 충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사외이사 경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거쳐 지낸 것이고, 한 번에 여러곳에서 사외이사를 지낸 적도 없다”라면서 “보수도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른 사외이사들과 동일한 보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후보자는 전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적은 없고, 평생 집 한 채에서 살고 있다. 집을 두 번 옮겼는데, 해외에 나갈 때 그동안 모은 돈으로 형편에 맞게 집을 옮겼다”면서 “그 집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 있을 것이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차익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AI 3대 강국 도약’ 국가 컨트롤타워 구축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실질적 전략기구로 위상 강화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 구축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의결됨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기업 단위를 넘어 국가 간 총력전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조치다.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700조원, EU는 300조원을 투자하는 등 주요국이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세워 대응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단순 자문을 넘어 실질적인 전략기구로 위상이 강화된다. ▲국가 AI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 ▲부처간 정책 및 사업 조정 ▲정책 이행 점검

및 성과 관리 등을 심의·의결 범위에 포함시켜, 민간 역량을 총결집하는 국가 AI 전략 기구로 자리매김한다.

구성도 대폭 보강된다. 위원 수는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늘고,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된다. 이 중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해 운영 내실을 강화한다.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는다. 정부위원단은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개인정보위 등 13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책임관 협의회가 설치돼 정부차원의 시책 수립과 사업 조율을 뒷받침한다. 협의회 의장은 대통령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인공지능책임관은 각 부처 차관급, 광역자치단체 부시장·부지사로 꾸려진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으로 국가 AI 컨트롤타워가 제도적으로 마련됐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선봉에서 서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

李 대통령 “성장을 하락 흐름 반전시키는 첫 정부 돼야”

범정부 차원 종합대책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국가 잠재성장을 반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가 잠재성장을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 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 증명됐다”면서도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 반짝 효과에 그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 정신을 더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면만 있어서 되겠다. 소빨을 바로 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며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에 힘을 모아야 한다.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과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예진 기자 syj@

한국인의
패스트 푸드를
세계인의
베스트 푸드로

| 리아 새우 |

| 리아 불고기 |



TASTE THE FUN
LOTTERIA™

‘평생어부바’ 신탁 비상 연체율 8%대로 치솟아

부동산 PF 부실에 연체 급등
2009년 이후 최고수준 기록
지방 신탁 지점 건전성 취약
부실채권 정리지연 우려 확산

상호금융 신탁이 높은 연체율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한 소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움직임이 자산 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신탁의 연체율은 8.36%로 전년 말 대비 2.33%포인트(p) 급등하면서 지난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평생 어부바’ 신탁의 연체율은 지난 2022년 말 2.47%에서 2023년 3.63%, 2024년 6.03%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 그만큼 부실대출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하고 주요 상호금융조합 업권 가운데 연체율이 가장 높다. 농협과 수협 연체율은 4.70%, 7.82%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82%p, 1.08%p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신탁의 지난 6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53%로 전년 대비 1.45%p 올랐다. 농협(5.38%)과 수협(8.26%)이 전년 대비 각각 0.85%p, 1.06%p 상승한 것으로 감안하면, 신탁의 상승폭이 크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대출 중 실제 부실 위험이 큰 대출의 비중을 뜻한다.

건전성 위기는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신탁은 올 상반기 333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3375억원 순손실을 낸 것에 비하면 42억원 적자 폭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 지점을 중심으로 금융연결리가 더 취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전대덕신용협동조합의 올해 6월 기준 연체대출 비율은 7.68%로, 지난해 6월



대전광역시 서구 신탁중앙회관 전경.

/신탁중앙회

(1.17%) 대비 약 6배 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순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2.64%에서 5.48%로 상승했다.

전북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전북온누리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같은 기간 연체대출비율이 3.08%에서 6.86%로 급등했다. 순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2.55%에서 5.42%로 올랐다. 경북에서는 영덕군 구구신용협동조합이 연체율 6.34%로 높은 수준의 연체율을 보였다.

신탁 건전성 악화의 주 원인은 부동산 PF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는 데다 비우량 부동산 대출에 문제가 생기면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실채권 정리가 소극적으로 이뤄지면서 연체율 해소가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은 그간 부실정리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상황에서 부동산 대출 부실이 대손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순이익이 감소했다”며 “건전성 관리를 통해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탁은 지난해 하반기 부실채권 정리 목표액으로 1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LH,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대구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
차익 규모 3개월 내 피해자에 지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대구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KB부동산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최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무리한 것이다. 피해 회복률은 48%에서 최대 100% 수준으로, 구체적인 차익 규모는 매수인 추가 부담 비용 유무 등을 관계기관과 최종 확인한 후 3개월 내 피해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절차상 제약이 많아 매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탁 매매 방식은 우선수익자의 희망가격을 기준으로 협의가 이원화되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매입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며 국회가 지난 7월 사회적 협약을 우선하는 등 민간 협력으로 첫 성과를 냈다. 이번 과정에서 신탁사는 일부 계약 조건 조정과 매매대금 확정을 지원했고, 우선수익자도 신탁공매 중지와 명도집행 유예 등을 통해 피해자 주거불안을 최소화했다.

LH는 이번 첫 사례를 계기로 신탁사와 협의를 강화해 매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신탁사별 최초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해 다른 피해주택에도 일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단축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전세사기 피해주택 중 신탁사 유형은 약 5% 수준이며 지금까지 203호가 LH 매입 협의 신청을 마쳤다. /전지원 기자

외국계 생보사 3社, 2분기 실적 각자도생

라이나, 순익 2000억대 체력 과시
메트라이프, 저점 탈피 반등 신호
AIA, 안정적 외형으로 자산 확충

외국계 생보사의 존재감이 떨어진 가운데 국내에 남은 3곳(라이나·메트라이프·AIA생명)의 올해 2분기 실적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 보장성 중심의 내실을 다진 곳이 수익성에서 앞서가고 감독·시장 변수에 민감한 곳은 회복 탄력이 부상하는 양상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과 ABL생명이 우리금융 품으로 들어가면서 외국계 측이 슬립해진 잔존3사는 수익성·건전성·영업효율에서 서로 다른 강점을 나타냈다. 단순한 순위 경쟁을 넘어 회계 가정과 시장 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성과를 갈랐다.

수익성 부문에서 라이나생명은 올 2분기 기준 순이익 2055억원으로 여전히 높은 이익 체력을 유지했다. 운용자산이익률 3.05%, 영업이익률 11.48%, 자기자본이익률(ROE) 6.79% 등 핵심 지표는 후퇴했지만 이익 규모 자체는 상단을 지켰다.

라이나생명은 “운용자산이익률의 하락은 전년 동기 중 환율상승 영향으로 언뜻 포지션에서 크게 발생한 외화 환산이익의 기저효과”라며 “이후 헷지 비율 상승으로 당해연도 환율하락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순이익이 726억원으로 전년 동기 56억원에서 크게 늘며 저점 탈피 흐름을 보였다. 총자산이익률(ROA)과 ROE는 각각 0.56%와 3.93%회복세를 나타냈다. 운용자산이익



조지은 라이나생명 사장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사장

네이슨 황 AIA생명 대표

률은 3.98%로 1.2%포인트(p)하락했으나 이익 정상화가 지표 전반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AIA생명도 올 2분기 순익 7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억원 증가했다. ROE는 0.67%p 상승한 5.24%로 집계됐다. 운용자산이익률 3.46%, 영업이익률 6.93%, ROA 0.8%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건전성 지표에서는 온도차가 뚜렷했다. 라이나생명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360.31%(경과조치 전·후 동일)로 높은 방어력을 과시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332.5%로 전년 동기 대비 22.3%p 낮아졌는데 제도 변경에 따른 할인율 산출 방식 현실화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두 회사 모두 300%대의 여유 구간을 지키고 있으나 금리·가정 변경이 추가 반영될 경우 변동성 관리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금감원 할인율 가정 현실화에 따른 보험금융손실 효과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했다”며 “보험계약부채 환율변동손실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

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업 효율을 보면 전략 차이가 드러났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신계약률이 5.94%로 전년 동기 대비 2.02%p 상승했다. 효력상실 및 해약률은 4.32%로 낮아졌고 보험금지급률은 62.20%로 크게 개선됐다. 신계약과 유지가 동시에 개선돼 체질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라이나생명은 신계약률 3.98%, 해약률 5.91%, 보험금지급률 53.62%를 기록했다. 포트폴리오를 암보장을 특약 중심으로 재정렬하는 과정에서 신계약 확장 폭은 제한적이었으나 지급률은 절반 수준으로 안정적 흐름을 유지했다.

AIA생명은 외형에서 존재감을 유지했다. 총자산이 2분기 기준 19조원 수준으로 메트라이프생명(26조3426억원)·라이나생명(8조6869억원) 사이의 중간 규모로 자리했다.

AIA생명은 “채권 금리 하락과 투자 확대에 따라 채권 관련 자산이 크게 증가했다”며 “당기순이익의 누적액 반영으로 자본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로또 단지’ 잠실 르엘, 1순위 청약 631대 1

전용 59㎡B 타입 761.7대 1 기록
대출규제 적용에도 경쟁률 높아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이 1순위 청약에서 평균 6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마감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약 10억원의 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단지’라는 점에서 수요가 집중됐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일 진행된 잠실 르엘 1순위 청약에는 총 110가구 모집에 6만9476명이 신청해 63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전용 59㎡B 타입에서 나왔다. 43가구 모집에 3만2755명이 몰려 761.7대 1을 기록했다. 이어 ▲74㎡B(21가구 모집, 691.2대

1) ▲74㎡C(16가구, 596.9대 1) ▲45㎡(23가구, 433.7대 1) ▲51㎡(7가구, 382.7대 1) 순이었다.

앞서 지난달 29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도 흥행을 보였다. 총 106가구 모집에 3만6695건이 몰려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유형별로는 생애최초(1만5593건)와 신혼부부(1만5046건)에 신청이 집중되며 실수요자의 수요가 두드러졌다.

지난 7월 서울 성동구에서 분양한 ‘오티에르 포레’가 평균 688.1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잠실 르엘이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다만 오티에르 포레는 수도권 주택 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 규제 시행 이전에 분양 공고가 나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반면 잠

실 르엘은 규제를 적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

예를 들어 잠실 르엘 전용 74㎡에 청약하려면 최소 12억원 가량의 현금이 필요하고 전세보증금을 통한 잔금 총당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거주 의무 3년, 전매제한 3년까지 더해졌다. 그럼에도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것은 강남권 입지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시세차익 기대감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잠실 르엘은 잠실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5층, 13개 동, 총 1865세대 규모다. 당첨자 발표는 9일, 정당계약은 22~24일 진행되며 입주하는 오는 2028년 예정돼 있다.

/전지원 기자 jiw13@

우리銀, 네이버페이 특화 파킹통장 특판

200만원 한도 내 연 4.0% 금리
판매 한도 선착순 30만명 혜택

우리은행과 네이버페이(Npay)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4.0% 금리를 제공하는 ‘Npay 머니 우리 통장’을 특판한다고 2일 밝혔다.

‘Npay 머니 우리 통장’은 네이버페

이 선불충전금을 보관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전용 계좌로, 간편한 개설과 높은 금리 혜택, 실시간 결제 연동 및 포인트 적립 등 디지털 생활금융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판매 한도는 선착순 30만명이다.

Npay 머니 우리 통장 개설 고객 가운데 선착순 20만명에게는 연 4.5% 금

리 혜택의 ‘Npay 우리 적금’ 가입 기회도 주어진다. Npay 우리 적금은 6개월 만기 상품으로, 매주 1000원 이상 월 3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적금 납입 시 매주 네이버페이 포인트가 지급된다.

박용진 우리은행 신사업제휴플랫폼 부 부장은 “앞으로도 플랫폼과의 협업을 강화해 디지털 생활금융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한화, ‘오르카 사업’ 공략… “韓 잠수함으로 국방협력 강화”

〈폴란드 해군 현대화〉

한화그룹 방산3사, MSPO 참가
장보고, K9A2, APS 등 선보

현지 생산 전제 맞춤형 솔루션과
계약 후 6년 이내 납기계획 제시

한화그룹이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 참석하면서 폴란드 ‘오르카 사업’(Orka·해군 현대화 사업) 수주를 위해 총력에 나선다. 앞서 한화오션은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숏리스트(적격후보)에 선정되면서 유럽에서도 종합 솔루션을 제시하겠다는 전략이다.

2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한화그룹 방산3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시스템)는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MSPO 2025)에 참가한다. 한화 방산 3사는 이번 MSPO 2025 전시회에 299㎡ 규모의 통합부스를 마련했다.

통합부스는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한화오션이 전진배치 됐다.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MSPO 2025)에 참가한 한화 부스에 다연장 천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돼 있다. /한화

오르카 사업은 폴란드가 18~21억 유로(약 2조9000억~3조4000억 원)를 들여 3000t급 잠수함 3~4척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업계에선 폴란드 정부가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독자설계한 장보고-III(KSS-III) 배치-II를 전면에 내세웠

다. 공기불요추진체계(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됐고, 현존 디젤 잠수함 중 최고의 잠항 능력(3주 이상)을 보유한 것은 물론 탄도미사일(SLBM) 등 장거리 타격 능력까지 갖췄다. 잠수함의 길이는 약 89m, 배수량은 약 3000t이다. 한국 해군이 운용하는 최신형 모델이다. 특히 533mm 어뢰관 6개와 자

체 개발한 10개의 수직발사대(K-VLS)를 갖추고 있다.

한화오션은 폴란드 해군과 발트 3국의 연안 작전 환경을 고려한 2000t급 수출형 연안경비함(OPV)과 500t급 미사일 고속정(FMPC), 500t급 무인함 등 현지 생산을 전제로 하는 맞춤형 솔루션도 선보였다.

한화오션은 오르카사업에서 독일과 스페인 등 유럽 경쟁사들과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계약 후 6년 이내 첫 잠수함을 인도하겠다는 빠른 납기 계획도 제시했다.

한화오션 특수선 해외영업팀 이경길 상무는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는 한화오션”이라며 “오르카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 시장에 한국 잠수함의 우수성을 알리고 양국 간의 국방 협력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을 비롯한 한화 방산 3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해양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우주까지 전 영역에서 포괄적인

협력으로 폴란드의 안보와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의 성능개량형 모델인 ‘K9A2’를 MSPO에 처음 공개한다. 포탄을 100% 자동으로 장전해 기존 분당 6발에서 9발 이상 신속히 발사할 수 있으며, 운용 인원은 5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수출형 보병 전투장갑차 ‘K-NIFV’도 폴란드 시장을 겨냥해 첫 전시된다.

한화시스템은 대전차 미사일 등 외부 위협을 선제적으로 감지해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동방호체계(APS)’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우주 및 대공방어 분야에서는 소형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과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등도 선보인다.

손재일 대표는 “한화는 K9과 천무 사업을 통해 폴란드와의 약속을 지키며 깊은 신뢰를 쌓았다”며 “향후에도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자주국방 및 방산 생태계 전반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oul.co.kr

美, 中 ESS 배터리 관세 인상… 국내 업계, 점유율 확대 기회

美, 내년부터 中에 58.4% 관세 부과
LG엔솔, 美서 LFP 배터리 생산 확대
삼성SDI, 삼원계 배터리 생산 시작
SK온, 연내 ESS 수주 목표 속도

미국이 내년부터 중국산 에너지 저장장치(ESS)용 배터리에 부과하는 관세를 올해 40.9%에서 58.4%로 인상할 예정이다. 중국 견제 기조가 강화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에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ESS 배터리에는 현재 기본 관세·상호 관세·펜타닐 관련 보복 관세가 합산돼 40.9%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관세율이 25%포인트 인상돼 최종 58.4%에 달할 전망이다. 무역법 301조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 및 보복 조치를 규정한



LG에너지솔루션의 전력망용 ESS 배터리 컨테이너. /LG에너지솔루션

조항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무역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됐다.

이로 인해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IM증권 리서치본부에 따르면 40.9% 관세를 적용받는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공급 가격은 약 82.4달러지만, 내년 58.4% 세율이 적용되면 약 87.3달러로 상승한다. 이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한국산 LFP 배터리 셀의 예상 가격(85~90달러)과 사실상 동일하다.

시장 점유율 변화도 예상된다. 올해 미국 ESS 시장에서 중국은 약 65%, 한국은 13%를 차지하지만 내년에는 중국 55%, 한국 23%로 격차가 좁혀지고 오는 2027년에는 양국이 각각 40%씩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액공제 요건 역시 중국산 배터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따라 연방투자세액공제(ITC)와 첨단세액공제(AMPC)를 받기 위해서는 ‘우려 외국 기업’이 제공한 부품의 제조원가 비중이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되며 이 요건은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기준은 2026년 45%에서 시작해 2027년 40%, 2028년 35%, 2029년 30%, 2030년 이후에는 25%로 점진적으로 강화된다.

이처럼 고율 관세와 규제 강화로 중

국산 부품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늘어나는 ESS 수요와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6월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으며, 올해 17기가와트시(GWh) 규모의 생산 능력을 내년 30GWh로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SDI는 연말부터 ES용 삼원계 배터리 생산을 시작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LFP 배터리 생산 설비를 추가할 예정이다. 양사는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RE+(Renewable Energy Plus) 2025’ 전시회에서 신제품을 선보인다.

SK온은 아직 ESS 시장에 본격 진입하지 않았지만 연내 수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삼성전자 로봇청소기 신제품 보안인증 최고 등급

삼성전자의 로봇청소기 신제품이 보안 성능을 객관적으로 입증 받았다.

삼성전자는 2025년형 로봇청소기 신제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에서 최고 등급인 ‘스탠다드(Standard)’ 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KISA의 IoT 보안 인증은 로봇청소기, 홈캠, 스마트가전 등 일상 속 IoT 기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해킹이나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여부를 평가해 인증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비스포크 AI 스티프’ 로봇청소기로 국내 최초 스탠다드 등급을 획득했으며 현재까지 스탠다드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2025년형 ‘비스포크 AI 스티프’ 로봇청소기 신제품은 한층 강화된 보안 솔루션이 적용됐다. 삼성전자의 독자 보안 솔루션인 삼성 녹스는 물론, ‘녹스 매트릭스’의 트러스트 체인 기술을 새롭게 탑재해 스마트싱스로 연결된 기기가 서로의 보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위협을 감지해 차단한다.

또 비밀번호나 인증정보, 암호화 키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하드웨어 보안 칩에 별도 보관하는 ‘녹스 볼트’도 탑재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한다.

2025년 비스포크 AI 스티프 신제품은 5일(현지시간)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25’에 전시되며, 연내 출시 예정이다.

삼성전자 DA사업부 김덕호 상무는 “삼성 비스포크 가전에 탑재된 녹스 기반의 강력한 보안 성능은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HD한국조선해양, 필리핀 첫 선박 건조 돌입

아시아 선사 수주물량 중 첫번째

HD한국조선해양이 베트남에 이어 필리핀에서도 해외 조선소 성공 역사를 이어간다.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2일 필리핀 수빅만에 위치한 ‘HD현대필리핀조선소’에서 11만 5000톤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 건조를 위한 강재 절단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 지난해 12월 아시아 선사로부터 수주한 총 4척의 시리즈선 가운데 첫 번째 물량이다. 행사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 메리케이 칼슨(MaryKay Carlson) 주필

리핀 미국대사, 이상화 주필리핀 한국대사,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내 조선소들이 벌크선, 탱크 등 일반 상선 시장에서 중국에 밀려 고전하는 가운데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 필리핀이 경쟁력 회복과 시장 재탈환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선소 출범은 한·미·필리핀 3국 간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실제로 HD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HD현대중공업은 2022년 필리핀에 군수지원센터를 설립해 호위함과 초계함 등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LG전자-英 옥토퍼스, 클린테크 사업 ‘맞손’

유럽서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 선택

LG전자가 영국 전력회사 옥토퍼스 에너지(이하 옥토퍼스)와 손잡고 유럽 클린테크 시장에 솔루션 공급을 확대한다.

LG전자는 옥토퍼스와 지난 8월 28일 영국 런던 옥토퍼스 본사에서 클린테크 분야의 전략적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옥토퍼스는 30개가 넘는 국가에서 1000만 명 정도의 고객을 보유한 전력 공급 회사다. 탈탄소를 목표로 현재 영국을 중심으로 가스 보일러 대신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양사는 LG전자의 고효율 히트펌프



(왼쪽부터) LG전자 해외영업본부장 윤태봉 부사장과 옥토퍼스 CEO 겸 설립자 그레그 잭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전자

냉난방시스템과 옥토퍼스의 크라켄을 연동시킨 솔루션을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주요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노동 이슈, 갈등보다 합의 필요 독수리처럼 높이 보고 대안 제시”

조주현 中企연구위원장, 간담회

“1년간 정책 목소리 키워 위상회복
ESG·AI 등 정책의 대응력 높여
향후 글로벌 협업 확대 등 추진”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노동 이슈에 대해 “이미 법이 통과되고 정책이 확립된 것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제도가 만들어진 만큼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실행) 매뉴얼을 통해 (기업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게 중요하다. 운영 단계에선 갈등보다 합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주현 원장은 2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 처벌법, 주 4.5일제 등 이재명 정부에서 더욱 급변하고 있는 노동 관련 현안에 대한 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마침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조 원장은 “시기적으로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지만 ‘혁신’과 ‘성장’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가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

은 구조 전환이나 혁신 전환 과정에서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의 현상유지를 돕기위해서다. (지원하는 것은) 경영안정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면서 “기업은 부를 창출하기위해 사회가 수용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안전’ 역시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조 원장은 ‘신뢰자본’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조 원장은 “이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금전적 비용과 시간적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 여기서 시간적 비용을 줄이기위해 단계적 적용방안을 잘 만들면 수용성이 커질 것이다.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도 개선방안을 탄력성 있게 만들면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출신인 조 원장은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적인 씽크탱크이자 공공기관인 중기연구원 원장 자리에 지난해 9월6일 취임했다.

조 원장은 “지난 1년은 회복의 시기였다.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위상을 회복하기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ESG·AI 등 중장기 대응 대과제, AI·스마트제조·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 미 관세·탄소중립

등 수시 연구를 통해 정책 대응력을 높여왔다”고 전했다.

중기연구원은 앞으로 ▲중장기 패러다임 대응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고도화 ▲정책수요 기반 이슈 발굴 ▲글로벌 협업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내부적으로 ▲재정 안정화 ▲조직 혁신 체계 안착 ▲성과 기반 인사·인센티브 제도 확립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중요한 주체여서 연구원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외부와) 더 많이 소통하겠다. 소상공인 분야에선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 연구도 계속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외부에 공표하는 대표적인 결과물 중 하나인 ‘중소기업 이슈’ 포커스’를 통해 시의성 있는 연구 성과를 꾸준히 내놓고 이슈도 주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조 원장은 “정책 씽크탱크가 되는 게 쉬운 길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독수리처럼 높이 보면서도 현장의 현실과 다가오는 미래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통해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나가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제주 수산물 기업 해외시장 진출 촉진”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현장 간담회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제주에서 지역 수산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섰다.

중진공은 지난 1일 제주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찾아가는 중진공’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 수산물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고 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강 이사장을 비롯해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 전용찬 수협 제주지역금융본부장, 이호성 제주 수산물수출협회 회장(올래씨푸드 대표 이사) 등 지역 관계자와 제주 수산물 기업 6개사 대표를 포함해 총 12명이 참

석했다.

간담회는 지난 2023년 말 체결한 ‘중진공·제주도·수협은행 간 도내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성과를 공유하며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파악과 지속적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2023년도 업무협약 성과보고 ▲수출기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제도 소개 ▲수출기업 현장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해결방안 및 정책 제언 논의 등이다.

특히, 설비투자 확대, 신남방 수출시장 개척, 홍보 콘텐츠 제작과 프로모션 행사 지원 등 수출 기반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제시됐다.

/김승호 기자

효성-다임러트럭, ‘스타트럭코리아’ 출범

동근태·안토니오 란다조 2인 체제

효성그룹의 계열사인 에프엠케이(FMK)와 세계 최대 상용차 제조사 다임러트럭이 공동 출자한 합작법인 ‘스타트럭코리아’가 1일 공식 출범했다.

효성그룹의 국내 수입차 시장 운영 노하우와 다임러트럭이 지닌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결합해 ‘안전·혁신·지속가능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고객 중심 통합 비즈니스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새로운 사명인 ‘스타트럭코리아’는 메르세데스-벤츠의 프리미엄과 혁신을 상징하는 ‘별’을 계승하는 동시에 국내 상용차 시장에서 전문성을 지닌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브랜드 슬로건은 ‘드라이빙 더 퓨처, 파워링 코리아’로 미래형 모빌



안토니오 란다조 스타트럭코리아 CEO(왼쪽), 동근태 스타트럭코리아 대표이사(가운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효성

리티를 선도하는 혁신과 고객 신뢰를 아우르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스타트럭코리아는 에프엠케이 출신의 동근태 대표이사와 기존 다임러트럭코리아의 안토니오 란다조 CEO(최고경영자) 체제로 운영된다.

/차상근 기자 sko8472@

이천 ‘시몬스 테라스’ 7년간 160만명 방문

지역사회와 상생 ‘랜드마크’ 자리매김

경기 이천에 있는 핫플레이스 ‘시몬스 테라스’에 7년간 총 160만명이 다녀갔다. 인스타그램 ‘시몬스 테라스’ 해시태그(#) 누적 게시물 수는 12만 4000건을 넘어서었다.

2일 시몬스에 따르면 2018년 9월 이천시 모가면 시몬스팩토리움내 4736㎡ 부지에 문을 연 시몬스테라스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적극 실천하며 지역 랜드마크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특히 시몬스 테라스는 ‘기업은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호흡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ESG 거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2018년부터 매년 열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및 일루미네이션 점등과 파머스 마켓은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잇는 소셜라이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성공적인 지역 융합 축제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승호 기자

현대위아, 모빌리티 기반 화력체계 알렸다

폴란드 ‘MSPO 2025’ 참가

현대위아가 동유럽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모빌리티 기반 화력체계를 선보였다.

현대위아는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MSPO 2025’에 참가했다고 2일 밝혔다. 오는 5일(현지 시각)까지 열리는 MSPO에는 유럽 주요 국가를 포함한 36개국에서 70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

현대위아는 유럽에서 개최하는 방산 전시회에 첫 단독부스를 마련하고 모빌리티 기반 화력체계를 전시했다. 모빌리티 기반 화력체계란 기존 화포를 경량화하고, 전술차량에 탑재한 화력체계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실물로 선보인 ‘경량화 105mm 자주포’가 대표적이다. 이 자주포는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의 신속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기존 제품보다 사거리와 기동력이 향상됐다.

/양성운 기자 ysw@

중기부, 모태펀드 1.1조 R&D에 2.2조 투입

내년예산 16.8조… 올해비 10.5%↑
소상공인 230만명에 25만원 바우처

내년 모태펀드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000억원 편성됐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도 가장 많은 2조1955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대비 45% 늘어난 금액이다.

소상공인 지원에도 5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6조8449억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2일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15조2488억원)보다 10.5% 늘어난 규모다.

우선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의 밑거름이 될 모태펀드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1조1000억원이 책정됐다. 이중 AI·딥테크 유망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에 5500억원을 투자한다. AI·바이오 등 신산업 10대 분야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예산은 전년 대비 11.3% 늘어난 1458억원이 편성됐다.

민간 벤처캐피탈(VC)이 투자한 기업에 정부가 기술 개발 자금을 제공하는 틱스 방식의 연구개발(R&D) 예산도 대폭 늘었다. 창업성장기술개발(틱스)에 6684억원이, 투·융자연계기술개발(스케일업틱스)에 2924억원이 배치됐다. 예비 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패키지에도 1818억원이 투입됐다.

소상공인 회복과 성장도 적극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에 총 5790억원을 배정했다. 경영안정바우처는 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새 명칭으로 연매출 1억4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약 230만명에게 공공금 및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등에

쓸 수 있는 최대 25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전통시장 등 취약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은 5조5000억원 규모를 발행한다. 소상공인 성장을 돕기 위한 정책자금에는 3조362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신속한 폐업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은 3056억원으로 전년 대비 24.7% 증액됐다.

중기부는 또 중소·중견 제조업의 AI 전환을 위한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에 올해 본예산보다 84.9% 늘어난 4366억원을 투입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해 편성한 예산안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꼼꼼히 집행해 재정 정책의 온기가 우리 경제에 빠르게 스며들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미국 휴스턴 해양 기술 전시회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개최 기간 : 2026년 5월 4일 (월) ~ 2026년 5월 7일 (목)
개최 장소 : 미국 휴스턴 / NRG Center

OTC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는
매년 5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해양 플랜트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회는 오일, 가스, 에너지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참가하며,
최신 기술 동향과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주요 구성 및 프로그램

- 유정기기 및 오일가스 수송 관련 제품
- 조선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 석유 및 가스 운송 장비
- 탐사장비
- 밸브 및 안전 장비
- 해저 파이프라인 및 플로우라인 기술
- 기술 발표 및 세미나
- 워크샵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STEERING OFFSHORE ENERGY INNOVATION INTO THE FUTURE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상반기 박람회 및 전시회

NO	행사 명	개최 기간	국가 및 도시
1	에센 융접 절단 박람회 [SCHWEISSEN & SCHNEIDEN 2025]	25년 9월 15일 ~ 9월 19일	독일 / 에센
2	상해 복합소재 산업 박람회 [China Composite EXPO 2025]	25년 9월 16일 ~ 9월 18일	중국 / 상하이
3	터키 이스탄불 알루미늄 박람회 [ALUEXPO 2025]	25년 9월 18일 ~ 9월 20일	터키 / 이스탄불
4	하노버 국제 공작기계 박람회 [EMO HANNOVER 2025]	25년 9월 22일 ~ 9월 26일	독일 / 하노버
5	슈투트가르트 판금속 가공기술 박람회 [17th BLECHEXPO 2025]	25년 10월 21일 ~ 10월 24일	독일 / 슈투트가르트
6	STAINLESS STEEL 2025 WORLD CONFERENCE&EXHIBITION	25년 11월 18일 ~ 11월 20일	네덜란드 / 마스트리흐트
7	청두 국제 도시 파이프 라인 박람회 [CICP EXPO 2025]	25년 11월 26일 ~ 11월 28일	중국 / 청두
8	엠티엠 메탈 월드 엑스포 [MTM EXPO SHANGHAI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9	상해 조선해양기술 박람회 [MarinTEC CHINA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5일	중국 / 상하이
10	상해 국제 금속 및 야금 박람회 [Metal World Expo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11	2026 국제 금형 주조 다이캐스팅 전시회 [EUROGUSS]	26년 1월 13일 ~ 1월 15일	독일 / 뉘른베르크
12	와이어/튜브 전시회 2026 [Wire&Tube Düsseldorf 2026]	26년 4월 13일 ~ 4월 17일	독일 / 뒤셀도르프
13	휴스턴 오프쇼어 박람회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26년 5월 4일 ~ 5월 7일	미국 / 휴스턴
14	고기능 금속 전시회 2026 [Material JAPAN 2026]	26년 5월 13일 ~ 5월 15일	일본 / 오사카



고객의 일정과 목적에 최적화된
맞춤형 일정 구성 및 솔루션 제공



글로벌 박람회 및 전시회
에어텔 및 입장권 예약



국가별 비자 신청 대행



개별여행, 인센티브 관광
MICE 등 여행 솔루션 제공

www.sn miles.com

기업 전문 여행사, 에스앤마일즈



QR코드 스캔
카카오톡 채널 연결
등록후 상담원연결 가능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20 S&M빌딩 6층
문 의 : 강성민 차장 T. 02-3487-2800 F. 02-583-4135 E. smkang@snmiles.com

통신3사, AI 수익모델 찾는다… 유료화 ‘시동’

SKT ‘에이닷 노트’ 유료화 전환
내달부터 일부기능 요금제 도입

LG U+ ‘익시오’ 이용자 확보 후
단계적 유료화 불가피할 듯

KT 기업대상 AI 서비스 집중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비서 ‘에이닷’의 일부 기능을 유료화하기로 하면서 통신업계 전반에 AI 서비스 수익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돈버는 AI’를 강조해온 이동통신 3사가 투자 규모는 키우면서도 뚜렷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했던 만큼, 이번 시도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가 주목된다.

2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통신 3사가 AI를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하고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유료화의 시동을 걸었다.

SK텔레콤은 최근 ‘에이닷 이용약관 변경’을 공지하며 음성 인식·정리 서비스 ‘에이닷 노트’를 유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회의·강의 음성을 최대 100분 단위, 월 600분까지 무료 제공하고 있으나, 10월 이후 일정 요금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다만 통화 녹음 요약이나 다중 거대언어모델(LLM) 체험 기능은 유료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회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점과 요금은



AI 사업을 차기 먹거리로 낙점한 통신 3사가 AI 고도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유료화를 시도한다.
/ChatGPT로 제작한 이미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출시된 에이닷은 통화 요약·스캔 차단·일정 관리 등 기능을 제공하며 22개월 만에 1000만 이용자를 확보했다. SK텔레콤은 최근 ‘에이닷4.0’ 업데이트를 통해 음악·미디어·상담 등 분산된 AI 에이전트를 통합했고, 운세·마음상담 등 생활형 서비스까지 확장했다. 지난달 말에는 검색 기능에 오픈 AI 최신 모델 ‘GPT-5’를 적용해 글로벌 흐름에 발맞췄다.

SK텔레콤의 움직임은 다른 통신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그룹 내 LG AI연구원 모델 ‘엑사원(Exaone)’을 기반으로 자체 AI 비서 ‘익시오(IXI-O)’를 서비스 중이다. 지난 6월에는 음성 위변조 차단 기

능 ‘안티답보이스’를 탑재했고, 영상 위변조 탐지 기능도 연내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하반기 중 일부 기능 유료화를 예고했지만 최근 “당분간 계획이 없다”고 선회했다. 다만 연내 100만명, 3년 내 600만명 이용자 확보 뒤 단계적 유료화는 불가피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KT는 에이닷이나 익시오처럼 B2C 직접 서비스는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기업 대상 AI 서비스에 집중한다. 마이크로소프트·팔란티어 등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체 국내 기업의 AI 전환을 돕는 한편, 자체 모델 ‘딴:음2.0’을 앞세워 공공·보안 분야 수요를 겨냥한다.

AI 인프라 확충 경쟁도 치열하다. SK텔레콤은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손잡

고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구축을 위한 장비 통합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슈나이더의 배전반·UPS·자동제어 설비가 공급되며,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적용해 운영 효율을 높인다. 양사는 향후 배터리 기반 차세대 UPS·ESS 개발, 에너지 구축사업 공동 영업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LG유플러스는 ‘AI 유니버스’라는 민간 협업체를 출범해 생활 속 AI 체험 확산에 주력한다. 지난달 협약식에는 과실연 AI미래포럼과 ‘유독픽AI’ 제휴사 10곳이 참여했으며, 이용자는 구독형 AI 서비스 ‘유독픽’에서 캔바·라이너 등 다양한 툴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 반응이 통신사들의 유료화 전략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에이닷 일부 유료화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른 통신사 무료 서비스로 갈아타겠다”는 반발이 나왔다.

IT업계 관계자는 “AI 비서는 아직 초기 시장이라 수익화 시도가 소비자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막대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서비스 고도화를 이어가기 위해 유료화는 불가피하다. 다만, 무료와 유료 기능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향후 시장 안착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LG U+·KODATA 기업·금융 특화 AI 개발

LG유플러스가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손잡고 기업·금융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동 개발한다고 2일 밝혔다.

KODATA는 국내 최대 규모인 1400만 개 이상의 기업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정보 전문기관으로, 기업 재무상태, 신용 등급,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번 협력에서 양사는 LG AI연구원의 초거대 언어모델 ‘엑사원(EXAONE)’과 LG유플러스의 도메인 특화 학습 기술 ‘익시젠(IXI-GEN)’을 결합해 금융·기업 분야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개발한다.

/김서현 기자 seoh@

SKT ‘AI 거버넌스 포털’로 신뢰·안정성 높인다

SK텔레콤이 사내 ‘AI 거버넌스 포털’을 공식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포털은 AI 서비스의 위험과 기회 요인을 진단·분석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SKT는 자체 수립한 AI 거버넌스 원칙 ‘T.H.E. AI’를 기준으로 서비스 검증을 진행한다. ‘T.H.E. AI’는 ▲by Telco(통신 기반 신뢰) ▲for Humanity(인류 복지 증진) ▲with Ethics(윤리적 책임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담고 있다.

정재현 SKT CGO는 “AI 거버넌스 포털을 통해 AI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윤리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네이버, 경쟁력 확보 나서

‘N배송’에 새벽배송 도입

수도권·충청 일부 서비스 개시
‘컬리N마트’ 출시도 준비 중

네이버가 ‘N배송’에 신선식품 새벽배송을 도입하며 신선식품 배송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컬리 물류 자회사 넥스트마일을 통해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에서 새벽배송 서비스를 개시했다. 오후 10시 이전 주문하면 익일 오전 7시 전 상품을 받을 수 있으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1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과 1회 무료 교환·반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는 지난 3월 오늘배송·내일배송·희망일배송 등으로 세분화한 ‘N배송’을 도입했으며, CJ대한통운과 한진 등과 함께 풀필먼트 얼라이언스(NFA)를 구축했다. 이후 컬리가 합

류하면서 신선식품까지 품목을 확대했고, 스마트스토어 내 컬리 전용관 ‘컬리N마트’ 출시도 준비 중이다.

새벽배송 확대는 네이버 커머스 성장세와 맞물린다. 2분기 네이버 커머스 매출은 전년 대비 19.8% 증가한 8611억원, 온·오프라인 거래액은 12조 9000억원으로 9.0% 늘었다. 회사는 멤버십 혜택과 대규모 할인행사 ‘강세일’ 등을 통해 거래액을 끌어올리고 있다.

관건은 쿠팡과의 점유율 경쟁이다. 쿠팡은 이미 새벽배송 시장을 선점했으며, 최근에는 제주산 갈치·옥돔을 항공으로 직송해 전국에 새벽배송하는 신선식품 서비스를 도입했다. 쿠팡의 공격적 확장에 네이버가 어떤 차별화 전략으로 대응할지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자체 웹 브라우저 ‘웨일’, 베트남 진출

크롬 점유율, 상대적으로 낮아

네이버가 자체 웹 브라우저 ‘웨일’의 첫 글로벌 진출지로 베트남을 선택하고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 네이버는 자체 웹 브라우저 ‘웨일’의 첫 해외 진출지로 베트남을 낙점했다. 동남아시아에서 구글의 크롬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베트남을 공략해 입지를 다진 뒤 인근 국가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2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베트남 법인은 최근 웨일 개발자 채용에 나서는 등 현지 맞춤형 서비스 운영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론칭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 관계자는 “AI 기반의 웹 브라우저 해외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출시 국가와 시점은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웨일은 2017년 크롬에 맞서 출시된 네이버의 토종 브라우저로, 5년 개발 끝에 완성됐다. 베트남은 크롬 점유율이 61.8%로 인도네시아(86.4%), 태국(70.1%)보다 낮고, 토종 브라우저 ‘국국’이 3000만 명 사용자를 확보하는 등 경쟁 구도가 형성돼 있어 네이버가 ‘해볼 만한 시장’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는 이미 베트남에서 법인을 운영하며 인지도를 높여왔다. 2022년에는 베트남 최대 에듀테크 기업 페니카 그룹과 손잡고 웨일 기반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을 추진했다. 올해 초에는 웨일에 AI 기능을 대거 탑재해 ‘클로바X’와 챗GPT를 검색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나섰다.

/최빛나 기자



뱀피르.

/넷마블

넷마블 뱀피르, 출시 직후 동시접속자 18만명

넷마블은 신작 MMORPG ‘뱀피르’가 출시 직후 동시접속자 18만명을 기록하며 자체 지식재산권(IP)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정식 출시된 뱀피르는 모바일과 PC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 게임으로, 애플 앱스토어 매출 순위에서도 출시 8시간 만에 1위를 차지했다.

뱀피르는 다크 판타지 콘셉트와 뱀파이어 세계관을 기반으로, 이용자 친화적인 파밍 시스템과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초반부터 적극적인 피드백 반영과 운영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이번 성과가 최근 침체된 MMORPG 장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넥슨, 업계 첫 숏폼 플랫폼 ‘넥슨 피크’ 공식 론칭

MZ세대 유저 자발적 창작활동 지원
숏폼 영상·텍스트형 포스트로 차별화

넥슨이 국내 게임사 최초로 자체 숏폼 콘텐츠 플랫폼 ‘넥슨 피크’를 공식 론칭하며 MZ세대 겨냥 콘텐츠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넥슨은 자사 대표 게임 IP를 중심으로

로 MZ세대 유저들의 자발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숏폼 커뮤니티 플랫폼 ‘넥슨 피크(Peak)’를 공식 론칭했다고 2일 밝혔다.

넥슨닷컴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숏폼 영상과 이미지, 텍스트 기반 포스트를 통해 게임 플레이 하이라이트, 공략 팁, 밈 등 다양한 콘텐츠

츠를 제작·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넥슨은 플랫폼 내 활동 유저를 ‘피커(Peaker)’로 명명하고, 창작자에게 보상 체계를 제공한다. 활동량과 콘텐츠 수준에 따라 넥슨 캐시와 리워드 포인트를 지급하며, 우수 피커에게는 배지 부여와 공식 SNS 홍보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주어진 키워드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챌린지’ 기능을 도입해 추가 보상과 노출 기회를 제공, 초기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넥슨 피크는 숏폼 영상과 텍스트형 포스트를 동시에 지원해 특정 포맷에 치중한 기존 소셜 플랫폼과 차별화한다. 슬로건은 “당신의 게임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피크가 된다”로, 일상적인 게임 플레이에서도 의미 있는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최빛나 기자

AI거품론·미중갈등 악재?... “중장기적 ‘K-반도체’에 유리”

8월 이후 삼성·SK 주가 하락세
호재에 ‘둔감’ 악재 ‘민감’ 급등락

증권가 “미중 AI경쟁 이슈 반복
딥시크 사태 연상, 실력차 여전”

#엔비디아의 지난 2분기(5~7월) 매출이 1년 전보다 50% 이상 뛰었다. 그러나 인공지능(AI) 거품이 꺼질 지 모른다는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했다. 매출 비중이 가장 큰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이 월가 추정치(414억 4000만 달러)보다 낮은 411억 달러(57조원)에 그쳤고, 미·중 갈등 여파로 중국에 저사양 AI칩 “H20”을 전혀 팔지 못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AI 반도체 자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알리바바의 AI 칩 자체 개발에 이어 딥시크의 화웨이 칩 도입 결정까지 이어지면서 중국이 미국 중심의 AI 기술 생태계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 상부무는 한미정상회담 개최 나흘만에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 반입 제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SK하이닉스 전경.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전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K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겹악재에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AI거품론, 트럼프 정부의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반입 제한, 중국의 AI반도체 자립 본격화 등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과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22% 상승한 6만 9100원에, SK하이닉스는 1.76% 오른 26만500원에 마감했다. 전날만 해도 각각 3.01%, 4.83%씩 급락했다. 8월 이후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는 가운데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해하며 급등락하고 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악재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프로그램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VEU 지위가 철회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법인은 향후 중국 공장으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등을 반입

할 때마다 미국으로부터 별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신규 라인과 공정들은 국내에서 생산·투자 계획이 돼 있고, 중국 지역은 현상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 단기적인 VEU 폐지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미국의 정책이 과거와 같은 되돌림(주가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중국 최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인 알리바바가 자체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악재다. 알리바바는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 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

수급도 요동쳤다. 외국인인 전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836억원, 1021억원씩 순매도했지만, 2일에는 다시 1324억원, 1112억원씩 사들였다.

증권가는 이들 악재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디램(DRAM), 낸드 생산량 축소 요인으로 작용해 향후 디램, 낸드(NAND) 가격 상승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기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중간 AI기술 경쟁 구도에서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견제로 투자심리를 흔드는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면서도 “이는 지난 1월의 딥시크 사태를 연상케 한다. 미중간 실력차는 여전하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마스가 예산계획 구체화 ‘조선株 강세’

한화오션, 5.84% 상승 12만3200원
삼성중공업 1.2%, 대한조선 0.99% ↑

한미 조선업 협력안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예산 투입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전 거래일 대비 5.84% 상승한 12만 320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장중에는 12만37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중공업(1.20%), 대한조선(0.99%), HD현대중공업(0.78%) 등 조선주 전반이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HD현대미포의 합병 소식이 더해지며 주가가 강세



지난 2월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200번째 LNG운반선. /한화오션

다.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는 최근 각각 이사회를 개최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양사 간 합병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양사는 향후 임시 주주총회 및 기업결합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범할 계획이다.

케이에스피(6.06%) 에스엔시스

(0.02%) 등 조선 부품·기자재 종목도 오름세를 보였다.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한 국내 조선업 훈풍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는데, 조선업 분야 예산이 확대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날 러스 보우트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BM) 국장의 제리 헨드릭스 보좌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화 필리조선소 사진을 게시했다. 이와 함께 “국장의 강력한 예산 지원으로 곧 군사적 측면에서의 큰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헨드릭스 보좌관은 백악관의 ‘조선업 사무소’의 실무를 총괄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어, 한화에 군함 발주를 예고한 것과 같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신하은 기자

4933개 금융사 자산·부채현황 ‘한눈에’

금감원, 금융산업 데이터 시각적 탐색
동적 시각화 분석시스템 ‘DIVA’ 공개

금융감독원이 금융산업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동적 시각화 분석시스템(DIVA·Dynamic Interface for Visual Analysis)’을 3일부터 정식으로 공개한다. 금융회사의 재무 현황을 시간·회사·계정 세 축으로 연결해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기존 표 형식으로만 제공되던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2일 “DIVA는 총 4933개 금융회사와 1만5438개 계정 항목, 약 5000만 개 데이터 포인트를 시각적으로 제공한다”며 “데이터를 내려받아 직접 가공할 필요 없이 인터페이스 조작만으로 금융사의 자산·부채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DIVA의 핵심은 3차원 데이터의 연계 분석이다. 시간축은 시계열 그래프

로, 회사와 계정 축은 ‘트리맵(Treemap)’ 인터페이스로 구현됐다. 예컨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계정을 선택하면, 은행별 주택대 잔액과 증가율이 박스의 크기와 색상으로 표시된다. 증가율이 높은 은행은 빨간색, 낮은 은행은 파란색으로 나타나 직관성을 높였다. 동시에 시계열 그래프에서는 해당 은행의 주택대 증가율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드릴다운(drill-down)’ 기능은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탐색하는 데 적합하다. 특정 자산·부채 항목에서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회사를 선택하면, 해당 금융사의 다른 계정 변동과 중장기 흐름까지 연계 분석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산업 내 특정 자산·부채 급증의 원인 기업을 신속히 파악하고, 그 기업의 다른 재무 지표까지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FISIS는 통계표 중심이어서 이용자가 데이터를 내려받아 엑셀 등으로 정리해야 했다. /허정윤 기자

‘TIGER 美 S&P500 ETF’ 순자산 9조 돌파

미래운용, 국내 ETF규모 1위 차지
애플 S&P500 추종 ETF ‘최대규모’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 S&P500 ETF’ 순자산이 9조원을 돌파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S&P500 ETF’ 순자산은 9조 1209억원이다. 국내 전체 ETF 1위 규모이자, 아시아에 상장된 전체 S&P500 추종 ETF 중 최대 규모다.

최근 미국 S&P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이어가며 ‘TIGER 미국S&P500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1일 기준 연초 이후 ‘TIGER 미국S&P500

ETF’의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는 1조 3825억원으로 국내 상장된 전체 ETF 중 1위를 기록했다.

올 하반기에도 ‘TIGER 미국S&P500 ETF’에 대한 매수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산업 성장과 대형 기술주의 견조한 실적,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S&P500 ETF’는 단기 투자처가 아닌 미국 대형주 중심의 안정적 성장성과 분산 효과를 동시에 제공하는 장기 투자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대표지수 ETF 적립식 매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달부터 2026년 1월까지 5개월간 해당 월의 ‘TIGER 미국 S&P500 ETF’ 혹은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매수 인증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TIGER ETF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 부문 대표는 “‘TIGER 미국S&P500 ETF’는 상장 이후 꾸준히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으며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ETF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TIGER 미국S&P500 ETF는 아시아 최대규모 S&P500 ETF로서, 투자자들의 자산 증식을 위한 장기 투자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KB운용, RISE 위클리 커버드콜 ETF 2종

국내 가치주·中 성장주에 투자

KB자산운용이 국내 가치주와 중국 성장주에 투자하는 위클리커버드콜상장지수펀드(ETF) 2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KB자산운용은 ‘RISE 차이나테크TOP10 위클리 타겟 커버드콜 ETF’와 ‘RISE 코리아밸류업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상장하는 두 ETF는 각각 중국 대표 성장주와 국내 저평가 가치주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변동성 완충 ▲안정적 수익 ▲성장 잠재력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RISE 차이나테크TOP10 위클리 타겟커버드콜ETF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경기소비재 3개 섹터 내 테크 관련 10종목에 집중 투자해 중국 테크주 모멘텀에 적극 참여하는 상품이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부상과 정부의 ‘AI+ 이니셔티브’ 정책 등으로 중국 빅테크 기업 성장세가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해당 ETF는 ▲텐센트(18.1%) ▲샤오미(15.4%) ▲알리바바(14.8%) 등 10개 핵심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 /최건우 기자 geon@

한전, ‘중대재해 근절 원년’ 선언

안전경영 혁신 선포식

본사 안전 전담 조직 확대 등
조직·제도·기술 전방위 개편
6개 분야 63개 핵심과제 추진
협력사 합동 특별무재해 운동

한국전력공사가 ‘중대재해 근절 원년’을 선언하며 안전경영 혁신에 속도를 낸다. 조직·제도·기술 전방위 개편과 함께 6개 분야 63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협력사와 합동으로 100일 특별무재해 운동에 나선다.

한전은 지난 1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직원과 전국 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경영 혁신 선포식을 열었다. 김동철 사장은 “오늘 선포식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한전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결연한 약속”이라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타협 없는 혁신을 추진하고, 협력사와 함께 상생하는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혁신안은 △조직·인력 등 자원 집중 △안전점검 강화 및 업무 효율화 △협력사 안전관리 제도 혁신 △용역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지난 1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직원과 전국 사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전경영 혁신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전

안전관리체계 전면 환류 △유해·위험 요인 제거 및 공법 전환 △AI 기반 스마트 안전기술 확대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본사 안전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안전점검 기동팀’을 신설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와 협력해 현장 안전 인력 신규 채용을 단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관리 인프라를 확대하고 협력사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QR코드 활용 인력 관리, 스마트 CCTV 성능 고도화 등 안전관리 인프라를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지원과 안전예산 선지급으로 협력사의 안전투자를 뒷받침한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입찰 참가 제한을 강화해 안전관리의 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술 혁신도 병행된다. 절연스틱 공법, 전주 인력오름 폐지 등 기존 안전성과를 바탕으로 휴전작업 확대, 다기능 작업차량 개발, 드론 공법 등 신기술을 적용해 감전·추락 사고를 원천 차단한다. 특히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해 근로자의 상태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VR 안전체험 장비, 스마트 글라스 등 자체 개발 장비를 교육과 현장 관리에 활용한다.

한전은 이날 선포식과 동시에 ‘100일 특별 안전관리 무재해 운동’을 즉시 전개하기로 했다. 본사·사업소·협력사 합동 안전점검과 현장 근로자 집중교육을 통해 실천 중심의 안전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에콰도르 시장 열렸다… 관세 단계적 철폐

한-에콰도르 SECA 정식 서명
중남미 시장 다변화 가시화 전망

에콰도르로 수출하는 자동차와 화장품, 라면 등에 붙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에콰도르를 기반으로 중남미로의 시장 다변화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에콰도르 루이스 알베르토 하라미요 생산통상투자수상부 장관이 2일 서울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SECA는 기존 관세 철폐 중심의 전통적 FTA에서 한 단계 진화해 환경·노동·공급망·보건 등 협력 분야를 포괄한 점이 특징이다. 양국은 2016년 협상 개시 이후 총 9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2023년 10월 협상을 타결했으며, 이번 서명으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에콰도르는 중남미 3위 원유 생산국이자 구리 등 자원이 풍부한 신흥시장으로, 미국 달러화를 통화로 사용해 투자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국 정부는 이번 협정을 발판으로 중남미 수출시장 다변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경제적 효과도 크다. 현재 최대 40%의 고율 관세가 붙는 한국산 자동차는 협정 발효 후 15년 내 철폐되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5년 내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본·중국 등 경쟁국 대비 우위를 확보할 전망이다. 화장품·라면·의약품 등 소비재도 5~10년 내 관세가 사라져 현지 한류 열풍과 맞물려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에콰도르가 온라인게임, 영화·음반 등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면서 K-콘텐츠 진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유(10년)·정제유(5년) 상호 개방으로 에너지 공급망 협력도 강화된다. 반면 쌀·마늘·양파 등 민감 농수산물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자 FTA는 수출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SECA 체결을 통해 공급망 위기 공조, IT·중소기업 협력 등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김포 산단 中企 에너지효율화 지원 본격화

한국서부발전, RE100 실현 속도
재생에너지 중심 정부 정책 부응

한국서부발전이 김포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의 에너지 효율화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서부발전은 지난달 28~29일 부산 해운대구 센텀프리미어호텔에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 2차 진도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회의에는 김포시와 김포산업지원센터, 모범청년기업인협회 관계자, 참여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말 서부발전이 김포산업지원센터, 한국생산성본부와 체결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협약을 바탕으로 공동 절차를 거쳐 선정된 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이 공유됐다. 특히 RE100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설비 개선, 에너지 비용 부담, 현장 애로사항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또 ‘2025 기후산업국제



서부발전은 지난 8월 28~29일 부산 해운대구 센텀프리미어호텔에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 2차 진도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김포시와 김포산업지원센터 관계자, 기업 대표, 모범청년기업인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서부발전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를 방문해 국제 기후산업 동향을 점검하고, 최신 에너지 효율화 기술 전시관을 함께 둘러봤다.

서부발전은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첫 사례로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11.69메가와트(MW) 규모 태양광발전소와 소형풍력, 전기차 충전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 ‘메가스테이션’을 구축 중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개발해 중소기업 맞춤형 솔루션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RE100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부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맞춰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올해 쌀 45만t·콩 6만t 매입

2025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확정
군급식, 가공·주정용 등으로 판매

정부가 올해 쌀 45만 톤(t)과 콩 6만 t을 사들인다. 공공비축미는 군용급식, 가공용, 주정용, 식량원조용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내용의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 및 매입가격을 포함한 ‘2025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공공비축은 기후변화, 천재지변 등으로 식량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운영하고 제도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비축 물량은 쌀 45만t, 콩 6만t 등이며 향후 세부계획을 수립해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하고 매입 직후에 농가에 게 중간 정산금으로 포대(40kg 조곡 기

준)당 4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친환경벼 전환 농가가 희망시 전량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친환경쌀 매입 가격을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5%포인트(p) 가격’을 추가로 지급한 데 이어, 매입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고품질쌀 생산을 지속 유도하려는 취지다.

올해 쌀 매입물량은 지난해와 동일한 45만t이며 이 중 가루쌀 매입계획량은 5만t이다. 시·군별 매입 물량은 지난 2월에 기배정됐으며 친환경 쌀의 경우 인증 시기 등을 고려해 추후 배정될 계획이다.

매입품종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삼광, 새청무, 일품 등 각 시·군에서 사전에 정한 2개 품종으로 제한한다. 또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할 경우 농가는 다음 연산 매입 시부터 5년간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수 없게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환경과학원, 환경위성 국제학술대회 개최

NASA 등 국내외 20여개 기관 참석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제16차 환경위성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 및 해외 20여 개 기관이 참석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유럽 우주국(ESA), 독일 항공우주센터(GAC),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의사회(UN ESCAP) 등이다.

환경과학원은 세계 최초로 발사된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을 통해 아

시아 전역의 광역적인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관측하고 있다. GEMS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20년 2월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위성을 비롯해 2023년 세계 2번째로 발사한 미국의 정지궤도 환경위성과 올해 7월 세계 3번째로 발사한 유럽의 정지궤도 환경위성 등 각국 위성자료를 이용한 연구 결과가 소개된다. 또 북반구 대기오염물질 동시 관측을 위한 3개 위성 간 공동연구 계획 등이 논의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아세안,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해소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아세안(ASEAN) 주요국과 손잡고 에너지효율 분야의 기술규제 해소에 나섰다.

국표원은 2일~4일까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한-아세안 에너지효율 기술규제 협력 프로그램’을 열고, 베트남·말레이시아·태국 등 아세안 8개국 규제 당국자와 국내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협력을 논

의한다고 밝혔다.

아세안 국가들이 최근 도입한 기술규제는 지난해 221건으로 전년 대비 63%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우리 수출기업이 겪은 애로 사례가 35건으로 급증해, 규제가 한국 기업 수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고효율에너지기기 지정제도, 에너지효율 국제표준과 국내 정책 간 조화 사례 등 규제

운영 경험이 집중적으로 공유됐다. 우리 기업 100여곳도 아세안 각국 담당자와 직접 만나 최신 규제 동향을 청취하고 개별 애로사항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우리나라의 모범 규제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 도입을 사전에 방지하고 우리 수출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으로 무역기술장벽을 신속히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AI·Cloud·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AI LLaMON Platforms

상용/SaaS 하이브리드형
연계통합 미들웨어·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METABUILD



‘폐교를 희망 터전으로’… 경북교육청, 지역 가치창출 이끌어

지자체·주민·외부기관 협력 강화
장기 미활용 폐교 활용방안 모색
임종식 교육감 “교육·지역 함께 상생”

경북교육청은 폐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외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이끌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폐교 매각이나 대부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절반 이상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간 미활용된 폐교는 일반 입찰을 통해 활용 방안을 찾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 폐교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입지가 불리해 어려움이 크지만, 장기방치로 인한 안전사고와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 대부와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폐교 활용의 우수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2007년 문을 닫은 김천 어모초등학교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로 바뀌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



울릉중 태하분교장 자리에 조성된 수토역사전시관.

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운동장에는 ‘나눔의 숲’이 조성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이 됐다.

1995년 폐교된 안동 화남초등학교는 2020년부터 농업기술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농기계 실습과 야생동물 퇴치 교육이 정기적으로 열리며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 폐교된 영천 자천중학교는 ‘보현산 녹색체험터’로 재탄생했다. 본관은 도서관과 카페, 놀이 공간으

로 꾸며졌고, 야외에는 짚라인과 녹지공간이 들어섰다. 최근에는 메타버스 체험관과 디지털 추억교실이 운영되며 지역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1999년 폐교된 칠곡 기산중학교는 ‘기산아트타운’으로 변모해 전통문화예술 체험의 중심지가 됐다. 금속공예, 목공예, 두부·떡 만들기 등 30여 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통문화 확산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 문을 닫은 울릉중학교 태하분교장은 울릉군이 매입해 2017년 ‘수토역사전시관’으로 개관했다. 조선시대 울릉도 관리 제도였던 수토제를 주제로 한 전시관은 실물 크기 수토선과 체험형 전시물을 갖추고 있어 울릉도의 개척과 수호 역사를 생생히 보여준다. 현재는 학생들의 역사 체험학습장과 주민들의 자긍심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폐교 재산 매각과 대부를 통해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상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교육청 담당자에 따르면 “버려진 공간이 희망의 터전으로 다시 태어나 지역 재생과 미래 세대 교육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종식 교육감은 “폐교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협력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교육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북도, 양성평등주간 행사

경북도는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맞아 1일 도청 동락관에서 ‘2025 경상북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 최병준 도의회 부의장, 임종식 도교육감, 도의원, 허명한 국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해 도내 여성 지도자와 다문화 여성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도가 주최하고 경북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경상북도’를 주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다짐하고 실천을 약속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전남도, 20일 ‘전남GT’ 개막

모터스포츠와 자동차 복합문화 발전을 위해 전남도가 매년 개최하는 2025 전남GT(Grand Touring) 대회가 20일부터 이틀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GT는 다양한 모터스포츠 종목과 함께 하는 스피드 축제다.

2시간 내구레이스인 ‘전남내구’를 포함해 국내 최고 수준의 프로대회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 레이싱 전용차량인 ‘스포츠프로토타입’, 모터사이클 종목인 ‘스포츠바이크’ 등 6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전남도는 원슈타인·마이트마우스의 축하공연, 가상레이싱, 카트체험, 미니카경주, 버블쇼 등 레이싱과 문화행사가 어우러진 관광자원으로 가족단위 관람객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안(전남)=양수병 기자 ysn6313@

창원시

임시주거시설 289개소 확보

창원특례시가 기후 변화에 따른 대형 재난 증가에 대비해 임시주거시설을 43곳 늘린 289개소로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극한 호우 등 장기간 지속되는 재난 상황에서 이재민들의 원활한 대피와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246개소에서 43곳이 추가된 것이다.

시는 지난 2월 재해구호물자 424개를 자체 제작·비축했으며 앞으로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재해구호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완도군

완도해양치유센터, 10만명 치유

완도해양치유센터 누적 치유객 수가 지난 주말 기준 10만 명을 달성했다.

10만 번째 치유객은 광주광역시에서 친구와 함께 센터를 찾은 김아로 님으로 전복 세트와 센터 초대권이 경품으로 전달됐다.

군은 완도해양치유센터 치유객 10만 명 달성 기념 환영 이벤트를 시작으로 10만 보 맨발 걷기 챌린지, 해양치유 건강 릴레이, 10만 축하 포토존 SNS 인증 이벤트 등을 30일까지 진행한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9h7505@

“경북바이오산업엑스포 놀러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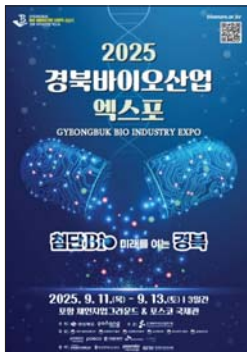
포항시 11일부터 사흘간 진행
‘첨단 Bio, 미래를 여는 경북’ 주제

포항시는 ‘2025 경북바이오산업엑스포’를 오는 11일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와 포스코 국제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첨단 Bio, 미래를 여는 경북’을 주제로 사흘간 주제별 컨퍼런스, 박람회, 기업 투자 상담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개막식에서는 포항의 우수한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재생의료 분야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또 세계적 재생의료 권위자인 제임스 유 웨이크포레스트 재생의료연구소 부소장이 ‘재생의학 제품의 생산 및 전달체계 확립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컨퍼런스는 포스텍, 포항소재산업진흥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포항테



크노파크 등이 주관해 ▲바이오·약 ▲푸드테크 ▲헬프 ▲그린바이오 등 4개 분과별로 개최된다. 국내외 우수 바이오기업과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바이오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다.

박람회장에는 경상북도와 포항시 주제관을 비롯해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전시관이 마련되며 최신 바이오 산업 트렌드를 소개한다. 시민과 관람객을 위한 스탬프 투어, 이끼 테라리움 만들기, 비즈 DNA 열쇠고리 제작 등 체험행사도 준비돼 전문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축제가 될 전망이다.

/포항(경북)=김진관 기자 jingon@

부산시, ‘미래산업 전환펀드’ 운용사 선정

원익투자파트너스 등 3곳 확정

부산시는 지자체 최초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1호’의 자펀드 운용사로 원익투자파트너스, 아주아이비(IB)투자, 노앤파트너스 등 3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모펀드 551억원이 결성된 데 이어 이번 자펀드 선정 공모에는 총 6개 펀드 운용사가 지원해 2대 1의 경쟁률 속에 3곳이 확정됐다.

이번 선정 결과는 ‘블라인드 펀드’(사전에 특정 투자처를 정하지 않고 조성되는 펀드)에 대한 것이며, ‘프로젝트 펀드’(특정 투자 대상이 정해진 상태에서 조성되는 펀드)는 별도의 수시 절차를 통해 추가 결정될 예정이다.

영덕 국가지질공원 ‘9월 생태관광지’ 선정

영덕군 체험 프로그램 강화 계획

영덕 국가지질공원이 환경부가 선정한 9월 ‘이달의 생태관광지’에 이름을 올리며, 생태와 지질을 아우르는 복합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덕 국가지질공원은 2023년 11월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고래불해안과 철암산 화석 산지, 죽도산, 경정리 해안, 해맞이공원 등 총 11개 지질 명소를 중심으로 생태체험 콘텐츠를 확장해 왔다.

영덕군은 고래불해안, 영해 메타세콰이아 숲 등 기존 관광지와 지질 명소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탐방로 정비와 편의시설 보안을 통해 방문객 만족도를



영덕 지질명소 중 하나인 죽도산 모습

높이고, 블루로드의 관광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선정은 영덕의 지질 자원과 생태관광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며 “지속 가능한 관광을 통해 자연유산을 지키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울릉군, 섬 지역 법·제도 개선 건의

국회 방문… 특별자치군 입법 등 요청

울릉군은 1일 신안군, 옹진군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를 면담하며 섬 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공동 건의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세 지자체가 공동 대응을 통해 섬 지역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인 입법·재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광폭 행보의 일환이다.

세 지자체는 ▲국토외곽면적 지원 특별법 종합발전계획 사업 확대 및 국비 보조율 상향 ▲이상취·서삼석·문

대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 통합 추진 ▲규제 완화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군 법안 입법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울릉군은 ▲울릉보건의료원 봉직의 인건비 지원 개선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반영 ▲주민 이동권 보장 및 해상교통 복지 실현 등 지역 현안도 함께 건의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특별법 개정과 특별자치군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릉도(경북)=박병률 기자 pbr34@

CJ제일제당, 1.1조 시장 정조준… 日 현지서 ‘비비고’ 생산

치바현 생산공장 가동

1000억 투입 축구장 6개 규모
美 이어 日 핵심시장 확장 구상

이토추상사 식품부분과 협약
“한류 열풍… K-푸드 확산 기회”

CJ제일제당이 일본 현지 생산거점을 확보하며 ‘K-푸드 세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전략 브랜드 ‘비비고 만두’를 앞세워 일본을 미국에 이은 핵심 시장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CJ제일제당은 2일 일본 치바현 키사라즈시에서 신규 만두 공장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신호 CJ제일제당 부회장, 그레고리 엽 식품사업부문 대표 등 주요 경영진과 치바현·키사라즈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 부회장은 “치바 공장은 일본 사업에서의 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의 영토 확장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완공된 치바 공장은 약 100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다. 축구장 6개 크기(4만2000㎡) 부지에 연면적 8200㎡ 규모로 지어진 국내 식품업계 최초 일본 현지 생산시설로 최첨단 생산라인을 갖추고 ‘비비고 만두’를 일본 전역에 공급한다. 그동안 CJ제일제당은 2020년 인수한 현지 업체



강신호 CJ제일제당 부회장(왼쪽)과 슈이치미야모토 이토추상사 식품사업부문대표가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CJ제일제당



일본 치바 신공장 전경. /CJ제일제당

‘교자계획’을 통해 오사카·군마·아키타·후쿠오카 등 4곳에서 위탁 생산해왔지만, 이번 독자 공장 구축으로 원재료 조달과 제품 공급을 효율화하고 현지화 전략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일본 냉동만두 시장은 연간 1조1000억 원 규모로 교자(餃子) 형태 제품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비비고 만두’와 직접적으로 겹치는 시장으로, CJ제일제당 입장에선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실제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비비고 만두의 인기는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올 상반기 일본 내 비비고 만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8% 증가했고 식품사업 전체 매출도 약 27% 늘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공장을 교두보 삼아 일본을 미국에 이은 해외 주력 시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미국에서 ‘비비고 만두’가 시장 1위를 달성한 성공 방식을 일본에도 심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현지 유통망 확보에도 속도

를 낸다. 이날 CJ제일제당은 일본 5대 종합상사 중 하나인 ‘이토추상사’의 식품 부문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토추상사는 일본 최대 식품 유통사인 ‘니혼약세스’, 대형 편의점 체인 ‘패밀리마트’ 등을 보유하고 있어 전국 단위의 공급망을 갖춘 기업이다. CJ제일제당은 이토추상사와 손잡고 일본 내 입지를 넓히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확대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이미 CJ제일제당의 주요 테스트베드이자 전략지역으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전 세계 국가 중 일본에서 가장 먼저 출시한 ‘비비고 김밥’은 이온(AEON), 코스트코 등을 중심으로 약 250만 개가 팔리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외에도 냉동김밥, K-소스 등 다양한 K-푸드 제품이 아마존, 라쿠텐, 돈키호테, 이토요카도 등 현지 주요 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올해 첫 글로벌 현장경영지로 일본을 방문하며 “한류 열풍이 다시 불붙는 지금이 K-푸드 확산의 결정적 기회”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비비고 등 이미 준비된 사업들이 이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며 현지화와 글로벌 인프라 구축 가속화를 주문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미국에서 달성한 ‘만두 1위’ 성공 방식을 일본에도 이식할 것”이라며 “현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제품으로 ‘비비고 만두’ 열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위스키 ‘더 글렌그란트’를 두고 가진 마스터 클래스. /신라면세점

신라면세점

위스키 ‘더 글렌그란트’ 고객초청 마스터 클래스

신라면세점이 스코틀랜드 대표 위스키 ‘더 글렌그란트(The Glen Grant)’와 함께 고객 초청 ‘마스터 클래스(Master Class)’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신라면세점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중구 장충동 소재 서울신라호텔에서 VIP 고객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더 글렌그란트의 신제품 출시 기념 ‘마스터 클래스’를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이번 마스터 클래스는 더 글렌그란트 스코틀랜드 본사의 마스터 디스틸러인 ‘그렉 스테이블스(Greig Stables)’가 직접 진행했다.

마스터 디스틸러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인물로, 위스키의 기획, 설계, 품질 등의 총책임자를 의미한다.

총 30년 경력의 그렉 스테이블스가 이끈 이번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더 글렌그란트 증류소 역사부터 제조법, 각 제품에 대한 소개까지 위스키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번 시음회에서는 더 글렌그란트의 대표 제품인 ‘더 글렌그란트 18년’ 등을 포함해 총 5종을 시음하는 시간도 가졌다.

/손종욱 기자

롯데그룹 14개 계열사 참여 30여개 직무 신입사원 모집

백화점 등 6곳 ‘아이엠 전형’ 도입
포트폴리오 1차 평가 후 역량검증

‘직무 기반’ 인사 제도를 도입한 롯데그룹이 이달 3일부터 ‘예측 가능한 수시채용’을 시작한다. 개인의 관심사와 전문성을 업무에 활용해 효과를 낼 수 있는 몰입형 인재 채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번 채용에는 롯데유패드, 롯데GRS, 롯데이노베이트, 롯데면세점 등 14개 계열사가 참여해 영업 관리, 인공지능(AI), 디자인 등 30여 개 직무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롯데백화점과 롯데호텔, 롯데월드 등 6개 계열사는 실무 중심 전형인 ‘아이엠(I’M) 전형’을 통해 신입사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I’M 전형은 실무형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입했으며 실무 수행 역량과 직무 비전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일반 전형과 달리 직무 관련 본인 경험과 역량을 담은 포트폴리오를 1차로 평가하고, 이후 현장 오디션 과정에서 직무 역량을 검증한다.

롯데는 이번 I’M 전형부터 직무 전문성을 가진 몰입형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평가 과정에서 관련 역량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채용 과정에서 직

무 분야를 대하는 지원자의 태도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는지 검증한다.

특정 분야에 대한 마니아형 성향을 경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인재 확보가 목적이다. 해당 평가 기준은 추후 경력사원 채용에도 적용해 본인만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롯데는 I’M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직무도 확대했다. 영업, MD(상품기획자), 고객 서비스 등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고 고객 및 파트너사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 직무가 추가됐다. 지난해에는 R&D(연구개발), 데이터, 디자인 등 실무 역량 중요도가 높은 직군에 우선 적용했다.

I’M 전형을 통한 채용 범위 확대는 롯데그룹이 지난해부터 도입하고 있는 ‘직무 기반 HR 제도’와도 맞닿아 있다. 직무 기반 HR 제도는 업무별 성과 체계를 기반으로 직무별로 요구되는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혁신적 성과 창출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 롯데이노베이트, 롯데바이오토크, 대흥기획, 롯데백화점 등 8개 계열사가 운영 중이며, 올해 28개 계열사가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롯데마트, 외국인 겨냥 ‘Mr. 김빠삭’ 출시

사워크림·파프리카 등 3종

롯데마트가 외국인 고객을 겨냥해 이달 4일 ‘Mr. 김빠삭 3종(오리지널·사워크림·파프리카)’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Mr. 김빠삭은 일반 김보다 약 20% 두꺼운 김을 튀겨 제작해 식감이 바삭하다. 외국인 고객이 휴대하기 편하도록 20g 소용량으로 제작했다.

롯데마트는 같은 날 ‘바다원 김스낵 3종’도 새롭게 선보인다. 해당 제품은 멸치와 견과류 원물을 사용해 고소한 맛을 강화했다.

롯데마트 측에 따르면 외국인 방문객 비중이 높은 롯데마트 제타플러스 서울역점에서는 ‘김 가공품’ 상품군이



롯데마트가 선보이는 Mr. 김빠삭 신상품과 K-뷰티 상품. /롯데마트

지난해 카테고리 매출 상위권에 올랐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계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40% 증가했다.

/손종욱 기자

SSG닷컴-김건 셰프 협업, HMR 4종 선포

SSG닷컴이 일본요리 전문가 김건 셰프와 협업해 가정간편식(HMR) 4종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썬닷컴 미식관에서 버터바지락솔뽕, 일본식 소고기 감자조림, 니쿠자가, 더블멘치카츠, 소보로야끼소바를 단독상품으로 선보인다.

버터바지락솔뽕은 사케 육수로 익힌 바지락에 이즈니 버터를 넣었고, 니쿠자가는 얇게 썬 우삼겹과 포슬포슬한

감자를 가스오부시 간장에 조리낸 정통 일본 가정식 메뉴다. 더블멘치카츠는 소고기의 풍미와 돼지고기의 촉촉함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소보로야끼소바는 돼지고기 크림블과 양배추의 풍성한 식감이 돋보이는 오사카식 요리다.

김건 셰프는 4년 연속 미쉐린 가이드 1스타에 선정된 고급 일식 레스토랑 ‘고료리켄’의 오너 셰프다. /손종욱 기자

동아오츠카

탄산수 ‘라인바싸’ 2종 무라벨 신제품 선보여

동아오츠카는 탄산수 브랜드 ‘라인바싸’ 레몬과 자몽 맛을 무라벨(Label-free) 제품으로 새롭게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라인바싸는 지난해 4월 플레인을 시작으로 이번에 레몬과 자몽까지 무라벨 제품으로 확대 출시하며 총 3종이 무라벨로 전환됐다.

무라벨 제품은 페트병 끝면의 라벨을 제거해 비닐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이번 라인바싸 무라벨 도입으로 연간 약 4330kg의 플라스틱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동아오츠카는 지난해 ‘포카리스웨트’ 무라벨 제품을 출시해 1년간 약 1만 7560kg의 비닐 폐기물 절감, 3만 1784kg의 탄소 배출 저감, 30년생 소나무 4948그루 식재 효과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박철호 동아오츠카 대표이사 사장은 “라인바싸 무라벨 출시를 분리배출 편의성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바이오, 올해 세번째 CMO 계약… 실적개선 ‘청신호’

글로벌 바이오기업 계약 체결
美 설비 기반 CDMO 사업 확대
“바이오 제조허브 입지 공고히”

롯데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기업과의 계약을 추가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한 데 이어 수주 확대 전략으로 외형 성장에 역량을 쏟는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일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바이오 기업과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해 올해 세 번째 수주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면역 혁신신약 과제의 임상 3상과 상업화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다. 해당 신약 후보물질은 다수의 적응증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으며 향후 품목허가 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추가적인 협력 가능성도 모색할 계획이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이며 고객사, 계약 규모 등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올해 들어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아시아 소



미국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 전경.

/롯데바이오로직스

재 바이오 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임상시험용 후보물질 생산 계약을 맺었다. 이후 6월에는 영국 바이오 기업 오티모 파마와 항체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계약을 추가했다. 이밖에 국내외 제약·바이오 업계로부터 수주 문의를 받고 있고 협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내 생산시설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사업 초기부터 공급망 측면에서 차별화를 이뤄냈다. 지난 2022년 12월 미국 뉴욕 동부 시러큐스에 위치한 BMS 공장을 인수해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로

전환한 것이다. 미국 내 생산 역량을 갖추며 지리적 이점까지 확보하게 됐다. 최근 미국의 리쇼어링(해외 생산시설의 자국 복귀)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시러큐스와 국내 송도를 모두 활용한 ‘듀얼 사이트 운용’ 전략도 펼칠 예정이다.

지난해 착공한 송도 1공장의 공정률은 올해 7월 기준, 50% 이상 수준이다. 오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송도 바이오 캠퍼스에 단일 품질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을 강화한다.

또 송도 1~3공장은 각각 12만 리터(1) 규모로 모두 완공 시 총 36만 리터(1) 규모의 대규모 상업 생산이 가능하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규모의 경제 실현과 원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장 설계 단계부터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와 제품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생산 체계를 구축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이와 함께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실적 반등을 위한 수익성 개선 기반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액 881억원, 누적 순손실 36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3% 줄었고 순이익은 적자 전환해 수익성 약화에 놓인 상황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당사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 경쟁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된 성과”라며 “세계적인 바이오 제조 허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하고 전 세계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파트너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지난달 29일 이대목동병원에서 김건하 이대목동병원 융합의학연구원장(왼쪽)과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대표원장(오른쪽)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GC녹십자의료재단

GC녹십자의료재단 보건의료 사업화 추진

이대목동병원 상호협력 업무협약

GC녹십자의료재단은 지난 8월 29일 이대목동병원 융합의학연구원과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 의료기기 분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GC녹십자의료재단과 이대목동병원 융합의학연구원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사업화’를 함께 추진한다.

또 의료원 및 재단 간 유기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기업 육성 세미나, 학술회의 및 워크숍 등을 공동 개최한다. /이청하 기자

광동제약 “제주개발공사와 삼다수 본계약 차질없이 진행”

일각서 협상 지연 제기… 정면 반박
“세부협의 거쳐 최종계약 체결 예정”

광동제약이 제주개발공사와의 제주 삼다수 본계약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진행 중인 제주삼다수 위탁판매 본계약 협상이 양사의 합의에 따라 지난주부터 개시되었으며, 세부 협의를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당초 1일 본계약을 맺을 예정



광동제약 본사 전경

/광동제약

이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한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협상 기한을 연장

했다.

제주삼다수 도외지역 위탁판매 계약은 공급 규모와 유통 전략 등 다양한 사항을 검토·논의해야 하는 만큼 면밀한 협상 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것이 회사 측 입장이다.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기한을 연장한 사례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지난 주부터 본계약 체결을 위한 세부협의를 시작되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협상 지연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SK바사, ‘스카이바리셀라’ 2도즈 3상 추진 (수두백신)

글로벌 수두백신 시장 진출 속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의 2도즈(2회 접종) 적응증 추가를 위한 글로벌 임상3상시험계획(IND)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국내의 생후 12개월~12세 소아 약 800명을 대상으로 2회 접종을 실시해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오는 2027년 내 완료될 예정이다.

스카이바리셀라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해 지난 2018년 국내에서 출시됐다. 이후 수두백신으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품질인증(PQ)을 획득했다.

현재 국내 국가예방접종사업, 민간 의료기관 등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최근에는 범미보건기구(PAHO) 공공 입찰에서 2025~2027년 장기 공급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기도 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스카이바리셀라 2도즈 개발을 통해 글로벌 수두백신 시장 진출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류지화 개발본부장은 “수두백신 2도즈는 WHO PQ 기반 국제 조달 경험과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빠르게 개발을 진행하는 전략적 파이프라인”이라며 “생산 안정성과 우수한 면역원성을 입증해 단기간에 개발을 완료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대웅제약, ‘이지듀’ 연매출 1000억 달성

기미앰플·기미쿠션 등 판매호조

대웅제약은 더마 화장품 브랜드 ‘이지듀’가 연매출 1000억원을 조기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7월 기준, 이지듀 누적 매출은 1000억원을 초과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00% 성장한 규모다. 특히 브랜드 대표 제품 기미앰플, 기미쿠션 등의 판매호조가 이뤄졌다.

해당 제품들은 대웅제약이 개발한 초고활성 피부 성장인자 ‘DW-EGF’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DW-EGF는 인체 상피세포성장인자(EGF)와 동일한 53개 아미노산 구조로 구성됐고 피부 재생 효과를 갖췄다.

기미앰플로 불리는 ‘DW-EGF’멜라토닌 원데이 앰플’은 마백 기능성까지

더해져 기미, 잡티 등 색소 침착을 관리해 준다. 인체적용시험에서 하루 사용만으로 짙은 기미 수와 기미 면적이 각각 32%, 42% 감소했다.

이러한 제품력과 함께 유통 채널 다각화 전략도 실적 성장세를 이끌었다. 올해 상반기 롯데홈쇼핑에서 1위 뷰티 브랜드로 선정되며 브랜드 파워를 높였다. 또 이지듀 직영 온라인몰을 통해 신규 고객을 확보한 것이 재구매율로 이어졌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DW-EGF의 효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소비자가 피부 고민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브랜드 차원에서 더욱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유한양행, ESG 경영 강화

유한양행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 운영 전반에서 ESG경영을 강화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유한양행의 ESG위원회는 환경경영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전담 조직인 ESG경영실과 ESG실무협의회는 전사 차원의 환경경영 전략 및 정책 수립과 실행, 장단기 환경목표 설정, 기후위기 대응방안 마련,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실행과제 등을 관리하고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환경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무신사 스탠다드 버뮤다 팬츠 판매량 급증

‘무신사 스탠다드(MUSINSA STANDARD)’가 선보인 버뮤다 팬츠의 올 여름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배 이상 증가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버뮤다’ 검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0% 늘었다. 같은 기간 버뮤다 팬츠의 판매량은 19만 장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9배 성장을 기록했다.

무신사 스탠다드 관계자는 “고객 요구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다양한 제품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상품 전략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CAMPUS LIFE

교육과 연구 혁신이 생활이 되다

지난 5년, 연구혁신 기반 시 교육 시스템으로
미래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해 온 우리 중앙은 세계를 연결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허브'로 발돋움해 왔습니다
교육과 함께 뛰어난 연구성과로 보다 나은 세상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선도하겠습니다

■ 지식 창출로 미래를 선도

- 500명 전임교수 채용, 연구사업 및 정부재정지원사업 1조 수주
- BK21 사업 18개, 선도연구센터[ERC, SRC] 6개, ICT 연구센터 4개, 중점연구소 3개 유치

■ 첨단기술 기반 학생 성장 지원

- 첨단 인재양성 체계 확립[시학과-시대학원, 산업보안학과-보안대학원]
- 시스템반도체 융합전문인력 양성사업[전자전기공학부 - 지능형 반도체대학원]

■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

- 세계 6대륙 661개 대학과 학생교류, 연구협력 협정체결

205관 첨단공학과 준공 예정
[2025년 착공]



중앙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2025. 9. 9. (화) ~ 9. 12. (금) 18:00까지
<https://admission.cau.ac.kr> | 02)820-6393





중기중앙회,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 열어

중소기업중앙회가 ‘2025년 제2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 열고 부정당제제 제도개선과 지자체의 MAS(다수공급자계약) 활용 자율화 방향 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일률적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기업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남부발전,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9관왕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8월 25~29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금상 3개, 은상 5개, 동상 1개 등 총 9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9관왕에 오른 성과다.

/남부발전



aT, ‘청렴리더상’ 수여… 신뢰받는 조직문화 강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지난 1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2025년도 aT 청렴리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2일 aT에 따르면 공사는 2018년부터 매년 임원과 부장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무 청렴성 ▲청렴 실천 노력 ▲술선수범 등 15개 항목에 대해 상·하위와 동료 평가단이 참여하는 다면평가 방식으로 개인 청렴도를 엄정하게 심사해 왔다.

/aT



콜마비엔에이치, ‘韓ESG경영대상’ 중견기업 대상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생산(ODM) 전문기업 콜마비엔에이치가 지난 8월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제3회 한국ESG경영대상’에서 중견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치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수상 을 기념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콜마비엔에이치



롯데푸드, 대한적십자 회원유공장 ‘최고명예대상’

롯데푸드가 대한적십자로부터 회원유공장 ‘최고명예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수상식에는 (왼쪽부터)위세량 롯데푸드 커뮤니케이션 부문장과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롯데푸드

SK이노 E&S, 美 LACP서 ESG 경영 노력 인정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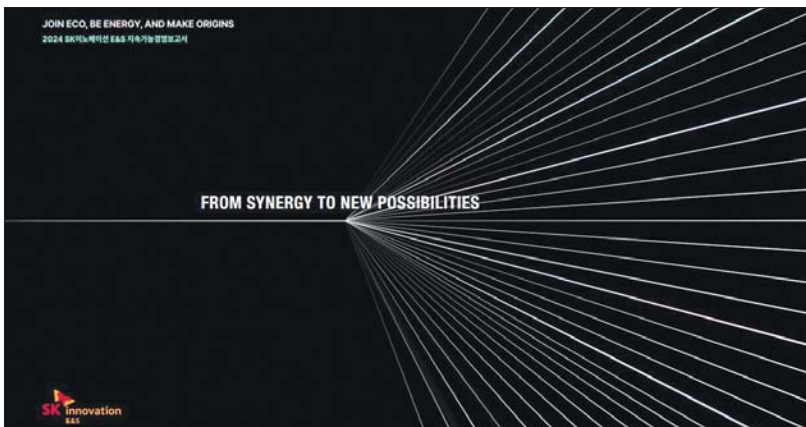
〈커뮤니케이션 연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3년 연속 금상
6개 항목서 만점… 총점 98점 기록
韓 TOP 50·아-태 TOP 100도 선정

SK이노베이션 E&S는 지난 6월 발간한 ‘2024 SK이노베이션 E&S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이 주관하는 ‘LACP 2024 비전 어워드(Vision Awards)’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LACP비전 어워드’는 2001년부터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제작물 경연 대회로 지속가능보고서·연례보고서 등 9개 분야에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다.

SK이노베이션 E&S는 이번 평가에서 ▲첫인상 ▲표지 디자인 ▲



2024 SK이노베이션 E&S 지속가능경영보고서.

/SK이노베이션 E&S

이해관계자 메시지 ▲내용 구성 ▲재무정보 ▲창의성 등 6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총점 98점을 기록했다. 이로써 2022년부터 3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 TOP 50 보고서’와 ‘아시아-태평양 TOP 100 보고서’에도 이름을 올렸다.

SK이노베이션 E&S는 2021년부

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시너지부터 새로운 기회로(From Synergy To New Possibilities)’를 주요 테마로 삼았다. ▲액화천연가스(LNG) 밸류체인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설루션 사업 현황은 물론, 이들

SK스피드메이트, 정비·유통 혁신 가속

출범 1주년 기념식 열어

SK스피드메이트는 지난 1일 출범 1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안무인 대표를 비롯한 구성원들과 모회사SK네트웍스의 이호정 대표이사 사장, 최성환 사업총괄 사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스피드메이트 가맹점주, 협력사 관계자들이 축하 영상을 보냈다.

전국 580여개 정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산 및 수입차 경정비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스피드메이트는 지난해 주간에 차량 정비를 위한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들을 위해 매장 운영 시각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별빛 정비’ 서비스를 선보였다.

별빛 정비는 수도권에서 시범 서비스 후 올해 전국으로 커버리지를 확대해 고객 편의를 한층 더 높였다. 지난 5월에는 현대적이고 세련

된 느낌의 새 로고와 함께 ‘내 차 정비의 시작과 끝’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면서 우수한 기술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객 중심 서비스 완성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수입차 부품유통 사업과 연계한 사업도 강화했다. 지난해 말 독일 자동차 데이터 기업인 DAT로부터 AI 자동견적 프로그램을 포함한 차량 데이터 솔루션 3종을 도입한데 이어 올해 수입차 통합 플랫폼 ‘허클베리 프로’에 적용함으로써 시스템의 완결성을 더했다.

차량 경정비, 수입차 부품 유통과 함께 엔진오일 등 차량용품 유통, 긴급출동 서비스, PB부품 수출 등을 전개하고 있는 SK스피드메이트는 보유 비즈니스 모델의 고도화를 추진해 업계를 선도하는 한편 사업 전반에 AI 접목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미래 혁신의 발판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삼성전자, ‘AI 홈’ 글로벌 영상 캠페인

‘IFA 2025’ 앞두고 진행

삼성전자가 오는 5일 개막하는 IFA 2025를 앞두고 영상 캠페인을 펼친다.

삼성전자는 ▲미국 뉴욕 타임스 스�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 등 글로벌 랜드마크에서 삼성전자가 새롭게 정의하는 ‘AI 홈’ 가치를 담은 영상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AI 홈은 삼성의 AI 제품뿐 아니라 타사 기기까지 스마트싱스로 연결해, 사용자를 이해하고 알아서 맞춰주는 개인화된 AI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스마트싱스로 완성한 AI 홈’을 주제로, 사용자가 삼성전자의 AI 홈을 통해 일상



의 여유를 찾고 더 의미있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부각했다. AI 기반 스마트싱스의 ‘자동화 루틴’ 기능이 에어컨 온도와 조명을 조절하고, 스마트싱스 앱

/차현정 기자 hyeon@

소진공, 소비활성화 정책·활동 추진

‘소비활성화추진단’ 출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8월부터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소비활성화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본부별 소비활성화 정책 이행사항 점검 및 소비촉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직원들이 사무실에 가장 많이 상주하는 목요일을 매주 ‘소비활성화의 날’로 지정해 구내식당 대신 인근 상점이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10월에는 본부 전 직원이 함께하는 소비캠페인을 진행하고 이달과

사업 간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파워 밸류체인 통합모델’ 구축 계획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또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각 영역별 주요 추진 체계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담았으며 ESG 정보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정량 지표를 강조해 보고서의 공신력을 높였다.

SK이노베이션 E&S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글로벌 어워드에서 3년 연속 수상한 것은, SK이노베이션 E&S의 ESG 경영에 대한 진정성과 노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라며 “글로벌 파워 밸류체인 통합모델과 친환경 혁신을 기반으로 미래 에너지 문제에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비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난 1일 박성호 이사장(앞줄 가운데)이 소진공 임직원들과 함께 대전 노은동 상권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11월에는 ‘1본부-1시장 캠페인’을 실시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필요 물품은 선결제를 통해 확보하거나 인근 상점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독려, 공공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을 실현할 방침이다.

소진공 12개 지역본부는 인구감소 지역이나 재해지역 등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통해 해당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기념품 제작, 워크숍·토론회 등 각종 기관행사를 자매결연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개최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삼표그룹, 산림·임업 연구생에 장학금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지원

삼표그룹장학재단인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 산림 과학과 임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연구에 매진할 미래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삼표그룹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최근 강원도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기 산림 Pioneer 육성 장학사업 장학증서 수

여식’에서 장학생 5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2022년 1기를 시작으로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제4기 장학생들은 석·박사 과정 학생들로, 연구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학문적 기여도·장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했다.

/김승호 기자

인사

◆ **국가유산청** ◇과장급 전보△운영지원과장 김용복 △역사유적정책과장 박정섭

◆ **알보젠코리아** ◇대표이사 △이옥세 사장

부음

▲ 이흥우씨 별세, 이상욱(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장씨) 부친상 =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4일, 장지 경기도 광주시 선산. 051-726-2009

세상을 조명하다, 상명
Global Light, SANGMYUNG

상명학원 설립
88주년

88th
60th

상명대학교 개교
60주년



상명대학교
SANGMYUNG UNIVERSITY

상명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
2025. 9. 8.(월) 10:00 – 9. 12.(금) 18:00

이자카야와 가라오케



김 양 평 의
일본 이야기

굳이 일본에 관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자카야와 가라오케라는 단어는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흥이 많고 음주가무를 즐기는 사람일수록 자주 접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자카야(居酒屋)는 한자 뜻 그대로(머무를 居 + 술 酒 + 가게 屋) 앉아서 술을 마시는 가게를 의미하고 우리말로로는 보통 선술집으로 번역된다. 그런데 막상 이자카야에 가보면 한국의 선술집과는 느낌이 다르다. 선술집은 술과 안주의 종류가 매우 단출한 반면, 이자카야는 아주 많은 종류의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표 선술집인 포장마차에는 안주 수가 10가지를 넘기기 힘들고 술의 종류도 한정적인데, 일본의 이자카야에는 20~30가지 안주를 주문할 수 있고 술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 어떤 술을 마실지 고민해야 할 정도이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자카야에는 ‘자릿세’라는 것이 있다. 이자카야에 들어서서 종업원의 안내를 받고 의자에 앉으면 주문

하지도 않았는데 작은 접시에 소박한 요리를 담아 가져다준다. 이것이 바로 오토오시(お通し)인데 이자카야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로 자릿세를 받기 위해 주는 음식이다. 일본을 방문한 여행자들은 본인이 주문하지도 않은 이 소박한 음식의 가격이 영수증에 예상보다 비싼 가격으로 청구되어 있어, 이자카야에서 바가지를 썼다고 말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가라오케는 그 어원이 특이하다. 가라오케는 일본에서도 한자 표기가 없이 주로 외래어를 표기하는 카타카나(カタカナ)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가라오케가 외래어이기 때문인데 세계 어느 나라 말에도 ‘가라오케’와 비슷한 단어는 없다. 사실 가라오케라는 단어는 일본어와 외국어가 혼용되어 1970년대에 만들어진 신조어다. 카라(カラ; 空)는 일본어로 비어있다는 뜻이고 오케(オケ)는 오케스트라(orchestra)의 줄임말이다. 즉, 가수의 목소리가 빠진 오케스트라라는 뜻이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노래방 반주기계를 가리킨다. 197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과 함께 전자산업이 발달하면서 개발된 신문물이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다. 동전을 넣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라오케 기계는 이자카야 등에 보급되

기 시작했고 그 문화가 한국에도 전파되었다. 한국에서도 초기에는 가라오케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어른들의 놀이터로 인식되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노래방’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도 자주 이용하는 건전한 놀이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일본의 가라오케와 한국의 노래방에도 차이가 있다. 우선 요금 체계가 다르다. 한국의 노래방은 방 크기에 따라 시간당 요금이 다를 뿐 인원수를 따지지는 않는다. 반면, 일본은 방 크기와는 상관없이 한 명당 정해진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다음으로 일본의 가라오케는 최근 이자카야를 품기 시작했다. 당초 가라오케는 이자카야에 놓인 반주기계에서 시작되어 하나의 업종으로 발전했는데, 이제는 가라오케에서 이자카야에서 판매하는 술과 음식을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한 것이다. 흥에 겨워 가무를 즐기는 노래방에서 종업원에게 직접 음식을 주문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 PC방의 이미지로 접근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노래를 선곡하는 리모컨을 가지고 음식 주문 창을 띄워 원격으로 주문하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없게 된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출점 경쟁 넘어... 편의점의 다음 숙제



기 지 수 첩
신 원 선
(유통&라이프부)

편의점은 이제 ‘작은 슈퍼마켓’이 아니다. 출근길에 커피를 사고, 퇴근길에 간단한 식사를 해결하며, 주말에는 택배를 부치고 공과금까지 납부할 수 있는 곳. 어느새 우리의 일상엔 편의점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편의점은 더 이상 상품을 파는 점포가 아니라 생활을 이어주는 인프라로 변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편의점이 이렇게까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올 줄은 예상치 못했다. 1인 가구와 고령화, 온라인 쇼핑의 성장으로 대형마트가 힘을 잃어가는 사이 집 앞 편의점은 오히려 존재감을 키웠다.

급할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 가까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안도감을 주는 곳이 됐다. ‘라스트 100미터 유통망’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하지만 이 진화가 모두를 위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편의점은 늘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으로 생활을 편리하게 만든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부담은 가맹점주가 짊어지는 경우가 많다. 무인 택배, 배달 서비스, 심지어 금융 기능까지 편의점은 만능 플랫폼이 됐지만, 이 과정에서 점주들이 감당해야 할 인건비와 운영 리스크는 커졌다. 결국 ‘생활 인프라’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팍과 희생이 자리 잡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봐도 고민은 있다. 편의점은 분명 가까워서 편리하지만, 그 편리함이 곧바로 ‘가치’로 이어지지는 않

는다. 돈을 내고 만족할 만큼의 특별한 경험이나 혜택이 있느냐?라고 물어왔을 때 쉽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는 것. 온라인몰과 배달앱과의 경쟁 속에서 편의점만의 정체성을 소비자에게 각인시키지 못한다면, 생활 인프라로서의 입지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편의점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결국 ‘편의성의 재정의’다. 단순히 가까이 있다는 물리적 의미를 넘어 소비자가 체감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 밀착형 서비스, 시니어 친화 서비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물류 허브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본사와 점주, 그리고 소비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찾는 일이다.

/tree6834@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3일 (음 7월 12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어려움을 겪어봐야 남의 어려움도 알게 된다. 48년생 뒤는 농 위에 나는 농 있으니 분발. 60년생 소나무는 눈서리를 이겨내 절개를 자랑. 72년생 집안 정돈이 되면 마음은 힘을 얻는다. 84년생 시시비비에서 내 잘못도 생각.



37년생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49년생 내일의 주인공이 되려면 평소 긍정적으로. 61년생 반려견을 키우려면 피해주지 말고 걸맞게 에티켓도 지켜야. 73년생 지혜가 있으니 두려울 게 없다. 85년생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38년생 소고기라도 먹지 않는 사람이 있기 마련. 50년생 힘들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면 보답이 온다. 62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주변을 정리. 74년생 예수는 항상 네 이웃을 사랑하라 말했다. 86년생 근면함으로 부족함을 극복.



39년생 하늘의 조화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듯이 인간의 길흉화복도 마찬가지. 51년생 투기와 투자를 제대로 구분하라. 63년생 마음은 별처럼. 75년생 시작에서 요아시스를. 87년생 재물이란 끈구름과 같다고 하지만 그래도 절실히 필요.



40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52년생 한발 앞서려다 두 걸음 뒤처지게 되니 주의. 64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여행도 추천. 76년생 할 수 있다는 말을 마음으로 되뇌여라. 88년생 비가 오다가 소나기가 몰려오는 하루가 되니.



41년생 일이 잘 안 되면 원인을 내게서 찾으려. 53년생 환영을 받으니 기쁨이 넘치는 하루. 65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꿀을 얻을 수 있다. 77년생 미인박명(美人薄命)이니 외모를 인위적인 수술은 신중하게. 89년생 변화가 와도 미미한 수준.



42년생 금전 문제 아니면 속상할 일이 생긴다. 54년생 썰물이 되면 바다의 바닥이 드러나 볼 수 있다. 66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새로운 만남을 주의해야. 78년생 첫 손가락에 배가 부르지 않는다. 90년생 지상낙원이 따로 없이 행복.



43년생 마른 우물을 찾고 기뻐하는 형국. 55년생 부모님의 건강과 안부를 챙기면 좋은 일이 있다. 67년생 남의 부러움을 사는 날이나 음주주의. 79년생 실로 알 수가 없는 것이 사람 마음. 91년생 기회가 주어지니 현명한 판단이 필요.



44년생 청소를 하면 기운도 따라 정돈이 되니 일이 풀린다. 56년생 가난에 시달리면 마음도 위축되니 제테크공부. 68년생 자신감이 총탄. 80년생 욕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인데. 92년생 한쪽 말만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도록.



45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 즐겁게. 57년생 돈이 많아도 지혜를 모아 지켜나가야 내 돈. 69년생 자나 깨나 불조심하는 날. 81년생 재주가 한 가지만 있어도 원만한 생활을. 93년생 인생살이 근심을 어찌 다 알 수가 있겠는가.



46년생 하루의 계획은 새벽부터. 58년생 세상에는 남의 잘못을 말하기 좋아하는 부류가 있다. 70년생 비가 든 구름을 걸어서 어찌 알겠는가. 82년생 젊음이 있으니 향기를 내뿜으려 하지 않아도 될 듯. 94년생 가족에게 공평하게.



47년생 작은 이익으로 원숭이따위와 닮을 주. 59년생 결과는 미래에 있기 마련. 71년생 큰 바다에 나가봐야 풍파의 거침을 알게 된다. 83년생 백옥은 진흙 속에서도 빛난다. 95년생 사람은 백인백색(百人百色) 천인천색(千人千色)으로 개성이 다르다.

김상회의四季

명당 로망(2)



선산이 있어도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풍조가 되어간다. 대부분 선산은 위치가 먼 지방인지라 실질적으로 묘터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참배조차 쉽지 않다 보니 서울 근교의 수목장이나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한다. 살아서도 온전히 자기 집 한 채도 쉽지 않았던 사람들이 서울 근교의 공원묘지 한 평을 억 소리 나는 비용으로 가기 어렵다.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라면 죽어서 내 재산을 갖고 가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누을 자리 하나 마련에 대한 로망은 뭐라 할 것은 아닌 듯싶다. 조상이고 뭐고 부모조차도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 사는 것도 바빠서 명절 때 묘소나 납골당 참배도 차가 막히느니 어찌나 한다. 힘들게 묘지를 썼다 하더라도 잔디 관리는 공원 관리자들에게 내는 관리비로 해결될 사안일 뿐이다.

그러니 감히 명당을 찾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특권층 아닐까. 필자가 아는 어느 스님은 아무리 시절이 바뀌었다 하나 화장은 절대 금물로 여기고 있다. 현대사회에 별 이상한 사건이 자주 생기고 상상할 수 없는 악덕 패륜 행위가 많아진 것의 원인을 화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분은 영가를 보고 느끼는 기운이 있는데, 화장하게 되면 영혼이 안식을 찾지 못한다고 본다. 인도처럼 화장이 당연한 문화인 곳과 우리나라처럼 매장풍습이 전통인 곳과는 비교하면 안 된다고, 매장으로 이어진 수천 년의 전통이 습이 된 민족은 화장하게 되면 영혼이 뒤흔들려 자손에게 해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매장을 흥지에 잘못하게 되면 그 해해가 더 큰 것 아니냐는 필자의 풍수적 반문을 바로 자르며 일갈하기를 매장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흥지도 바로 잘 잡을 수 있는 것이나, 화장은, 혼 자체를 놀래서 흔들려 놓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좋은 영향이 갈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당연한 말씀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4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85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레코드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4		8	9	3		2
					1	7		
9	7							5
6	4		1		5			
8								1
				9		8		6
5							2	4
		6	8					
3		5	4	9		1		6

2	1	2	9	6	8	6	9	8
6	8	6	9	2	1	9	2	8
8	2	9	8	1	6	6	2	9
2	9	1	6	2	8	9	6	1
9	2	8	6	2	9	8	6	1
9	6	6	1	9	8	2	6	2
6	2	8	8	9	9	1	2	1
1	6	8	2	9	6	2	8	9
8	9	2	6	2	1	8	6	6

9	2	1	2	6	6	9	8	8
8	6	9	2	1	8	9	2	6
6	2	8	9	8	2	6	1	9
2	9	6	8	2	6	8	9	1
1	9	2	6	9	8	2	6	8
8	8	6	9	2	1	2	6	9
9	8	9	6	6	2	1	6	1
6	6	2	1	9	9	8	8	2
2	1	8	6	8	9	6	9	2

최교진, SNS·음주운전 논란 ‘사과’ 지역불균형 해소, AI교육혁신 다짐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방북이력, SNS 논란에 사과·해명
음주운전 논란에 “가장 후회하는 일”
사교육 규제, AI교육 기반 마련 등
균형발전 위한 교육정책방향 강조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최고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도덕성, 교육정책 철학을 둘러싼 날 선 공방으로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과거 발언과 다수의 북한 방문 이력, SNS 활동 등을 문제 삼아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강하게 의심했고, 최 후보자는 사과와 해명으로 대응하며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이날 최 후보자의 방북 이력은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평양,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포함해 16차례 방북 승인을 받았으며, 일부 언론은 2011년까지 총 17차례라고 보도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북한 땅에 입을 맞추고 싶다고 표현한 발언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에도 방북을 이어간 행적은 국가관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당시 민간 교류 확대를 위한 공식 업무 수행 차원의 방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012년 대선 직후 최 후보자가 SNS에 공유한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이라는 글을 언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급하며 “부산 시민을 모독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직접 작성한 글은 아니지만 경솔하게 공유한 점을 인정하며 상처받은 시민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천안함 폭침 음모론 공유 논란도 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적 비극에 대한 음모론을 퍼뜨린 것 아니냐”고 질타했지만 최 후보자는 “국가의 공식 입장을 신뢰한다”며 “당시 사회적 논의와 토론을 위해 공유한 것일 뿐이며 피해자와 유가족께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도 거론됐다. 서지영 의원은 “후보자는 전과 3범으로, 2003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이명박 정부 내각이 ‘전과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후보자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며 분명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세종시교육감 재직 당시 인사 편향 의혹도 불거졌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교조 출신 인사를 법과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승진시켰다는 감사 결과가 있다”며 교육부 감사보고서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

후보자의 교육정책 분야 견해도 집중적으로 검증대에 올랐다.

최교진 후보자는 영어유치원과 유아대상 조기 사교육 문제에 대해 “4세 고시 등 조기 선발 테스트로 학부모 불안을 조장하는 사교육을 규제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라며 “학원법과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을 두고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은 절차적 합리성과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돼 현장 혼란을 초래했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치겠다”고 밝혔다. 또 “교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학생 정서 안전망과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해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며 “AI 시대를 선도할 교육혁신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략을 언급하며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고양시 UCLG ASPAC 총회 막바지 개최준비 총력

고양시가 오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2025 제10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고양 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아시아·태평양을 비롯해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20여 개국 220개 지방정부에서 약 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 총회의 주제는 '미래를 위한 자족가능한 글로벌 자족도시와 지역'이다. 이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스마트 인프라 등 다양한 도시 혁신 사례가 발표된다. 메인포럼에서는 가오 진 중국 이우시 부시장과 다리아 텔리 호주 지방정부연합 부위원장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고, UN 특사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 협력 비전을 제시한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7월 서울 찾은 외국인 관광객 ‘역대 최대’

7월 136만명 방문, 전년비 23.1%↑
체험형 관광에 ‘케데헌’ 열풍 더해져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달(110만 명) 대비 23.1% 증가한 136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전인 2019년 같은 달보다는 18.2% 많은 수치다. 국가별로는 관광객은 중국(47만 명), 일본(24만 명), 대만(16만 명), 미국(10만 명) 순이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도 총 82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19년 동기 대비 5.5%) 증가하며 동기간 기준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서울시는 최근 늘고 있는 글로벌 MZ세대 관광객이 선호하는 다양한 체험 콘텐츠와 안전하고 스마트한 디지털 중심 교통·숙박 인프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 매력 등이 관광객 증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케데헌’ 열풍이

더해져 동북아시아는 물론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등 다국적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9월 ‘3·3·7 서울관광 미래비전’을 발표 후 전 세계적인 여행트렌드인 ‘혼행(혼자하는 여행)’과 현지인 일상을 참신하게 경험하는 ‘노-노멀(No-Normal)’ 등을 반영한 전략을 추진하며 탄탄한 관광핵심유치 기반을 다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특히 서울시는 K-콘텐츠 체험관광 확대, 혼자서도 여행하기 편리한 관광 인프라 구축, 펀시티(Fun City) 실현을 위한 사계절 축제를 진행했다.

한편, 서울시는 ▲트래지 트래블 선정 ‘MZ세대에 가장 사랑받는 도시 4년 연속 1위’ ▲트립어드바이저가 뽑은 ‘나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1위’ ▲글로벌 트래블러 선정 ‘최고의 아시아 레저 목적지부문 1위’를 동시에 차지하면서 글로벌 MZ를 비롯한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현진 기자

파주~개성 잇는 ‘DMZ 마라톤’ 추진 청신호

파주시, 통일부에 대북접촉 승인 받아
지방정부 주도 남북교류 모색 ‘주목’

파주시가 ‘파주~개성 디엠지(DMZ) 국제평화마라톤대회’ 추진을 위한 대북 접촉에 대해 통일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았다. 시는 지난 27일 북한주민접촉신고가 승인되면서 절차적 제약 없이 독자적인 대북 교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파주시는 지난 8월 7일 김영일 시장이 직접 통일부를 방문해 북한주민접촉신고서를 제출했고, 이어 8월 13일에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신고 접수 후 20일 만에 이뤄진 신속한 승인은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확대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번 승인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

진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특히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남북 신뢰 회복의 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제평화마라톤대회는 임진각을 출발해 통일대교와 비무장지대(DMZ)를 지나 개성을 거쳐 다시 임진각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기획됐다. 세계 10여 개국에서 약 2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로 치러질 전망이다.

김영일 파주시장은 “중앙정부와 민간 교류 경험이 풍부한 단체와 협력해 남북대화 통로를 열어나가는 것이 관건”이라며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반도와 세계가 평화로 이어지는 상징적 무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회가 성사될 경우 전 세계인이 함께 DMZ를 달리며 분단을 넘어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강동송과 학생 마음건강 돌본다

마음키움 사회정서 교육의 날 확대
자기조절·인식 등 정서적 성장 도와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동송과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이 오는 2학기부터 ‘마음키움 사회정서 교육의 날’을 초·중·고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가운데 최초로, 내년 서울시 전체 확대 운영을 위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사회정서 교육은 ▲자기인식 ▲자기조절 ▲관계인식 ▲관계관리 ▲공동체 가치 인식·관리 ▲마음 건강 인식·관리 등 여섯 가지 핵심 역량을 기르는 프로그램으로, 단순 위기 대응을 넘어 일상 속 정서적 성장을 습관화하고 학교 공동체 내에 내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동송과교육지원청은 학생 발달단계별 5단계(초1~2, 초3~4, 초5~6, 중

학교, 고등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조·종례, 자율활동 등 학교 활동 전반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교수학습지도안, 활동지, PPT, 동영상, 명상 자료 등 다양한 교육 자료를 개발해 온라인 자료실을 통해 교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교사지원단 운영 ▲교장·교감 및 업무담당자 연수 ▲현장 사례 공유회 등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현석 강동송과교육장은 “정신건강에도 ‘생명의 골든타임’이 있다”며 “‘마음키움 사회정서 교육의 날’이 강동송과에서 시작해 학생 한 사람의 마음을 지키고 서울시 전체 학교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마음키움 사회정서 교육은 초5·중1·고1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현진 기자



▲시진핑 “중러 발전·국제 정의 수호에서 상호 지원”

/사진 뉴시스

▲트럼프 “푸틴-젤렌스키 회담 어려울 듯…3자 회의를 가능”

▲대만, 日후쿠시마 식품 규제 완전 해제 방침…14년 만에 철폐 수순

▲美 벌써 차기 대선 열기…공화당은 밴스, 민주당은 뉴섬 선두

▲트럼프 “코로나 백신 효과 데이터 공개하라”…CDC 혼란 속 제약사 압박

▲WTO수장, 슬로베니아 전략포럼서 세계무역진흥의 기반 강화 요구



CJ제일제당
日냉동만두 시장
정조준

L1



Life

롯데바이오
올해 세번째
CMO 계약
L2



국산 전동화 ‘가속’, 수입 전기차 ‘집중’... 신차 레이스 돌입

모빌리티

하반기 車시장 ‘신차 출격’

2025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은 국산차의 전동화 신차 공세와 수입차의 제한적 라인업 전략이 뚜렷하게 대비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PBV(목적기반차) 등 다양한 신차를 준비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수입차 브랜드는 상반기보다 신차 출시 규모가 줄어들어 전기차 위주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하반기 잇따라 신차를 선보이고 있다. 먼저 기아는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5 출시를 앞두고 있다. EV5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흥행을 이어가는 EV3, EV4에 이어 기아의 보급형 전기차 제품군을 완성하는 모델이다. EV5는 82kWh 용량의 NCM 배터리를 탑재해 약 500km 이상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아는 최초의 전동화 목적기반차(PBV) ‘PV5’를 출시했다. PV5는 1~3열 시트 배열을 ▲2-3-0 ▲1-2-2 ▲2-2-3 등으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모듈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 3열을 제거해 화물 적재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전좌석을 장착해 7인승 패밀리카로 운용할 수 있다.

현대차는 고성능 전기 세단 아이오닉



기아 보급형 전기차 EV5 출시 앞둔
모듈형 구조 목적기반차 ‘PV5’ 선보
현대차 고성능 세단 ‘아이오닉6N’
KG모빌리티 하이브리드 SUV 공략

6N을 내놓는다. 최고출력 650마력, 제로백 3.2초, 최고속도 260km/h 수준의 성능을 갖춰 현대차가 전기 스포츠 세단 시장을 겨냥해 내놓은 주력 라인업이다. KG모빌리티는 지난 7월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출시하며 하이브리드 SUV 시장 공략에 나섰다. 듀얼 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1.83kWh 고전압 배터리를 적용했으며, 복합연비 15.0km/L, 도심 주행 연비는 15.8km/L에 달한다. 르노코리아는 ‘세닉 E-테크 100% 일렉트릭’을 출시해 이달부터 출고에 돌입했다. 세닉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87킬로와트시(kWh)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가 탑재됐다. 1회 충전시 최대 460km 주행이 가능하고, 급속충전 시 20~80% 충전에 약 34분이 걸린다. 수입차시장에서는 BYD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중형 전기 세단 ‘썰(Seal)’ 출고

BYD 합리적 가격 전기 세단 ‘썰’
BMW 하반기, 6종 신규모델 선보
벤츠 고성능·초력서리 모델 투입
아우디 ‘A6e-트론’ 전기세단 강화

를 시작으로 중형 SUV ‘씨라이언 7(Sea Lion 7)’도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썰은 82.56KW 용량의 LFP 배터리가 탑재, 1회 충전으로 최대 407km(상온 기준)를 주행할 수 있다. 차량 가격은 보조금 적용 이전 기준 4690만원으로 보조금 적용 시 4000만원 초반에 형성

될 것으로 보인다. ‘씨라이언 7’은 BYD의 최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플랫폼 3.0 EVO를 기반으로 개발된 중형급 SUV로 가격은 5000만원 초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BMW는 올해 하반기 총 6종의 신규 모델을 내놓는다. 3분기에는 ▲120 ▲M135 xDrive ▲220 ▲228 xDrive ▲M235 xDrive 등 5종이 잇따라 출시된다. 여기에 4분기에는 브랜드의 플래그십 고성능 모델로 꼽히는 M5 투어링이 합류하며 하반기 라인업을 완성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하반기 한국 시장에 고성능과 초력서리 모델을 잇따라 투입한다. AMG의 CLE 53 4MATIC+ 쿠페와 GLS 63 4MATIC+가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마이바흐 최초의 오픈톱 모델 SL 680도 공개됐다. 전동화 전환 속에서도 내연기관 기반 고성능 모델을 강화하고 초호소력서리 라인업을 선보인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아우디는 A6 e-트론과 고성능 버전인 S6 e-트론을 통해 전기 세단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A6e-트론은 프리미엄 전기차 전용 플랫폼 ‘PPE’가 적용된 첫 번째 세단 모델로 동급 대비 최대 충전 출력(270kW)을 자랑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국산 브랜드는 대중형부터 고성능, PBV까지 전방위 전동화 공세를 펼치는 반면 수입차는 EV 중심의 소수 라인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전기차 단점 삭제... 첨단기술 집약한 ‘프리미엄 세단’

YG의 CAR TALK 자동차

A6 e-트론

주행성능·디자인·첨단기능 다 갖춰
노면별 주행 맞춤... 승차감 뛰어나
고효율 배터리로 주행거리 부담↓

4시간 가량 차량을 경험하면서 ‘완벽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차량은 극히 드물다. 특히 전기차는 처음이다.

바로 아우디가 브랜드 최초로 전기차 전용 PPE 플랫폼 기반으로 내놓은 첫 프리미엄 세단 아우디 A6 이트론(A6e-트론)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안정적인 주행성능과 스포티한 디자인, 첨단



‘더 뉴 아우디 A6 e-트론’ 주행 모습.

/아우디코리아

기능까지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이날 시승한 A6 e-트론 어드밴스드 트림의 첫 인상은 길게 빠진 차체와 낮은 루프라인을 적용해 날렵함이 묻

어났다. 투명도 조절이 가능한 스위처블 파노라믹 루프는 열과 눈부심을 완벽하게 차단하며 스포츠 시트, 전동 및 열선·통풍 기능을 적용해 국내 소비자

들의 눈높이를 완벽하게 맞췄다.

서울 종로에 있는 영풍빌딩을 출발해 강원도 원주까지 왕복 230km 구간에서 시승을 진행했다.

시동을 걸고 도심을 주행하면서 A6 e-트론은 아우디의 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차량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노면 진동과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고 증강현실(AR)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교통 표지판, 내비게이션 정보를 실시간으로 띄운 운전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특히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해 노면 상태에 따라 균형·다이내믹·승차감·효율 등 주행 모드를 조절하는 기능은 전기차 특유의 딱딱한 승차감을 완벽하게 보완했다. 전기차의

최대 단점인 울컥이는 출발과 예고 없는 급감속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매번 전기차 충전을 고민하게 했던 주행 거리에 대한 부담도 최소화했다.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는 복합기준 469km이며 공인 표준 전비는 복합 기준 4.5km/kWh이다. 이날 주행 후 전비는 7.1km/kWh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완충시 600km까지도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효율 배터리 기술을 적용해 동급 대비 최대 수준인 270kW의 최대 충전 출력으로 10~80% 충전 시 약 21분 만에 충전할 수 있어 충전에 대한 시간적인 부담도 줄었다.

다만 차량의 가격이 부담스럽긴 하다. A6e-트론은 트림에 따라 9459만원부터 1억586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아우디의 특별 전기차 지원금(약 1000만원 지원, 100대 한정)을 적용하면 매력적인 차임은 틀림없다. /양성운 기자 ysw@

메트로 한줄뉴스



▲홍명보호 미국 입성... ‘첫 발탁’ 카스트로프 웃으며 합류
▲켈리가 닳은 길 오스틴이 있다... 선두 LG의 원동력 된 ‘팀 문화’
/사진 뉴시스

▲라이더컵 유럽팀 명단 확정... 직전 대회 12명 중 1명만 변화
▲U-16 남자농구, 몽골에 85-59 대승... 아시아컵 2연승

▲국외 유출된 금산 보석사 ‘신중도’ 고국으로... 獨 경매서 낙찰
▲경북국 근정전 ‘호랑이’ 멀리서만 보세요... 다음 달까지 월대 출입 제한